

인권정보자료실  
CPb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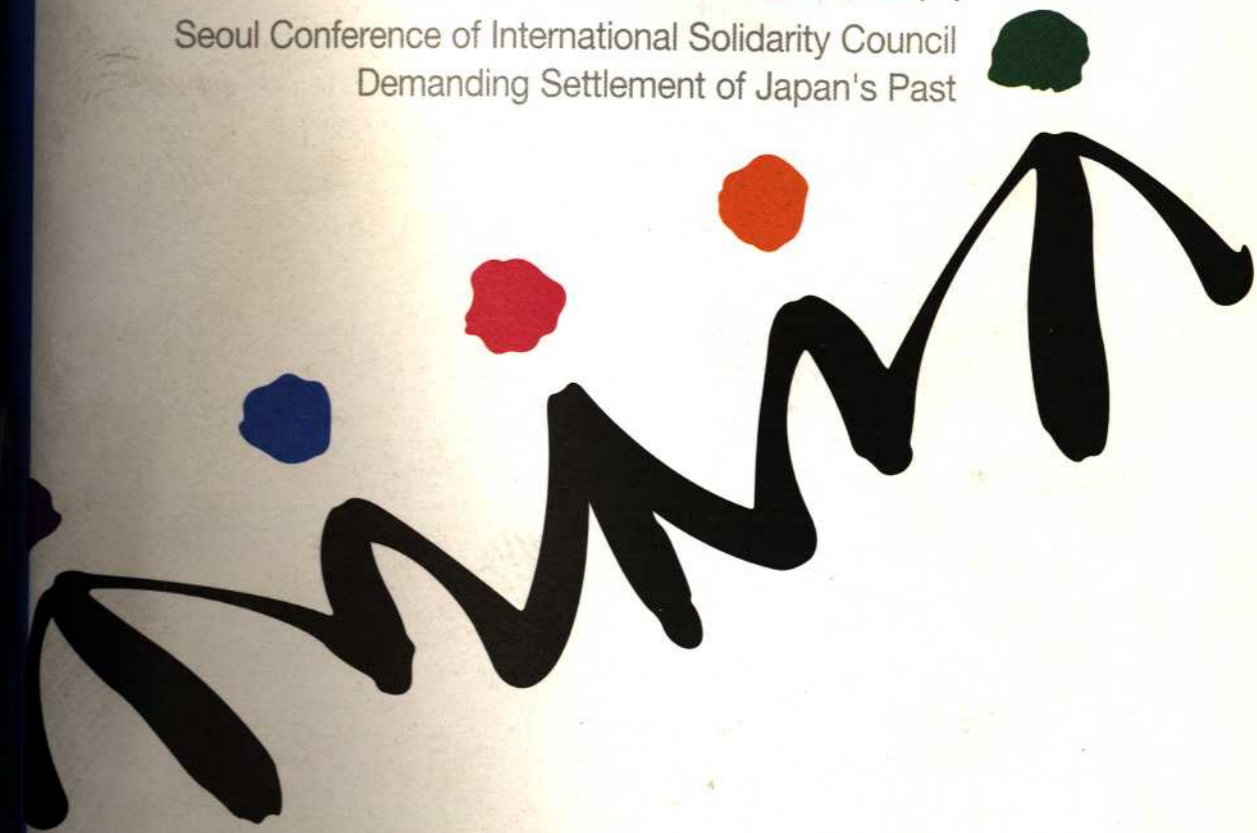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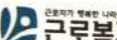
과거 · 현재 · 미래-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대일 과거사 청산운동

2004. 5. 20 ▶ 24 서울여성프라자

Seou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주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협찬 Life & Love with KRA   한국수자원공사  
www.kowaco.or.kr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인권정보자료실  
CPb1.101

요구하는  
올대회 조직위원회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

#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서울대회

과거·현재·미래-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대일 과거사 청산운동

Seou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 인사말

###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활동가에게 '연대와 교류'를!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이라는 후쿠오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연례화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강제동원에 관련된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가 일본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대회는 작년 9월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국제연대협의회) 후속모임이다. 국제연대협의회는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대일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시아 피해국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대일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결성되었다. 그동안 대일과거사 문제는 모두 개별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국제연대협의회는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힘을 합쳐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 따로 활동해왔던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킬 때가 된 것이다. 각 나라별로 해왔던 운동을 종합화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로 대일과거사 문제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기인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존피해자들이 돌아가시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번 서울대회는 남북을 비롯한 7개국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활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연구자 중심의 학술대회와 다르다. 서울대회는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활동가들에게는 '연대와 교류', 연구자들에게는 '정보와 동향'이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국제학술회의, 피해자증언, 비디오 상영회, 전시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질 서울대회는 대일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7개국의 운동의 성과를 녹여내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일과거사 운동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는다.

2004. 5. 20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 강만길 박형규 신법타 이효재

공동조직위원장 곽동협 박헌수 서중석 신해수 이수호

●인사말		3
●해외참가자 명단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미국, 일본		6
●서울대회 행사계획서		10
●대회일정표		14
●기조발표문	대일 과거사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서중석) ▶ 한, 일, 중, 영	29
●피해자증언	韓國人原爆被害者の 참상과 원호법재판의 勝利(남한 - 곽귀훈) ▶ 한, 일	65
	일본군위안부 피해(북한 - 리상옥) ▶ 별지	71
	남경대학살 피해(중국 - 강근복) ▶ 한, 중	72
	일본군위안부 피해(대만 - 루만메이, 쩡천타오) ▶ 한, 중	74
	일본군위안부 피해(필리핀 - 암모니타 바라자디아) ▶ 한, 영	82
	자료   특별세션 한민족증언(재일 - 정운모) ▶ 한, 일	90
●주제포럼 1	일본군위안부 문제(남한) ▶ 별지	97
	일본군위안부 문제(북한 - 홍선옥) ▶ 한	98
	일본군위안부 문제(일본 - 니시노 루미코) ▶ 한, 일	107
	일본군위안부 문제(필리핀 - 넬리아 산초) ▶ 한, 영	115
	일본군위안부 문제(미국 - 헨리유, 배리피서) ▶ 영	134
	역사교과서와 군국주의(남한 - 신주백) ▶ 한	137
	역사교과서와 군국주의(북한 - 계성훈) ▶ 한	148
●주제포럼 2	강제동원 피해문제(남한 - 장완익) ▶ 한, 일	157
	강제동원 피해문제(북한 - 손철수) ▶ 한	164
	강제동원 피해문제(일본 - 소라노 요시히로) ▶ 한, 일	174
	강제동원 피해문제(일본 - 아리미츠 켄) ▶ 한, 일	183
	집단학살 피해문제(일본 - 고마츠 아키히라) ▶ 한, 일	192
	집단학살 피해문제(중국 - 왕위민) ▶ 한, 중	198
	집단학살 피해문제(재일 - 은종인) ▶ 영상자료	207
●분과토론	일본군위안부   토론 - 국제활동 대응	209
	일본군위안부(북한 - 홍선옥) ▶ 한	211

##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서울대회

●분과토론	희생자와 유골문제   군인군속(일본 - 시미즈 스미코) ▶ 한, 일	213
	희생자와 유골문제   군인군속(일본 - 홍상진) ▶ 한	223
	희생자와 유골문제   군인군속(일본 - 김철수) ▶ 한	228
	희생자와 유골문제   군인군속(남한 - 김은식) ▶ 한	232
	자료: 희생자와 유골문제   군인군속(일본 - 후루카와 마사키) ▶ 한, 일	238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노동(일본 - 도노히라) ▶ 한, 일	240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노동(일본 - 리일만) ▶ 한	255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노동(일본 - 김순애) ▶ 별지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노동(일본 - 량상진) ▶ 일	259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노동(일본 - 김정원) ▶ 한, 일	262
	강제동원(남한 - 최봉태) ▶ 한, 일	268
	강제동원(일본 - 테루미 테라오) ▶ 일	281
	강제동원(일본 - 다케우치 아수히도) ▶ 한	283
	강제동원(일본 - 김수향) ▶ 한	297
	강제동원(북한 - 손철수) ▶ 한	301
	교과서문제: 토론 - 2005년 교과서재검정 ▶ 발표 이신철, 별지	304
	교과서문제(북한 - 계성훈) ▶ 한	305
	자료: 일본 역사왜곡 문제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309
●전체토론	공동성명서 채택	313
●특별세션	비디오상영	315
	한민족증언: 황종수(북), 이옥선(남), 정운모(일), 정진도(대)	
	그림 전시	317
●문화공연	치유를 위한 '울림'   시나리오	318
	치유를 위한 '울림'   임응희의 춤 "꽃은 피어 웃고 있고"	322
	바닥소리	324
	바닥소리 그외 문화공연	325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참여국가 · 지역		326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참여단체		333
●100인 추진위원!		338
●대회를 함께 일구어낸 역사지킴이! 그리고 고마운 분들!		339

● 서울대회 해외 참가자 명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미국)

번호	이름	영어	한자	숙소	소속 및 직책	국적	도착	출발
1	홍선옥	Hong Son Ok		Woman's Plaza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선	5/20	5/24
2	손철수	Son Chol Su		Woman's Plaza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서기장	조선	5/20	5/24
3	리연화	Riy Yon Hwa		Woman's Plaza	아시아여성들과 반대하는 조선녀성협회 서기장	조선	5/20	5/24
4	리성호	Ri Song Ho		Woman's Plaza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부서기장	조선	5/20	5/24
5	계성훈	Kye Song Hun		Woman's Plaza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부서기장	조선	5/20	5/24
6	김영철	Kim Yong Chul		Woman's Plaza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위원	조선	5/20	5/24
7	리명복	Ri Myong Bok		Woman's Plaza	민족화해협의회 참가자	조선	5/20	5/24
8	황종수	Hwang Jong Su		Woman's Plaza	강제연행피해자	조선	5/20	5/24
9	리상옥	Ri Sang Ok		Woman's Plaza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조선	5/20	5/24
10	왕위민	Wang Wei Min	王偉民	Woman's Plaza	남경대학살 기념관 부관장	중국	5/20	5/23
11	강근복	Jiang Gen Fu	姜根福	Woman's Plaza	남경대학살 피해자	중국	5/20	5/23
12	넬리아산초 리아오	Nelia Sancho Liao		Woman's Plaza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필	5/19	5/24
13	임모니타바라자디아	Ammonita Balajadia		Woman's Plaza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필	5/19	5/24
14	후일링			etc	대만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대만	5/20	5/23
15	타이얼라이			etc	대만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대만	5/20	5/23
16	쨥첸타오	Cheng Chen Tao		etc	대만위안부 피해자	대만	5/20	5/23
17	루만메이	Lu Man mei		etc	대만위안부 피해자	대만	5/20	5/23
18	정연진	Yeon Jean Chung		Woman's Plaza	바른역사를위한시민연대	미국	5/19	5/23
19	헨리유	Henry Yoo		Woman's Plaza	바른역사를위한시민연대	미국	5/20	5/23
20	함철훈	Ham Chul Hoon		Woman's Plaza	바른역사를위한시민연대	미국	5/19	5/23
21	손 청	Son Chung		Woman's Plaza	바른역사를위한시민연대	미국	5/19	5/23

● 서울대회 해외 참가자 명단(일본)

번호	이름	영어	한자	비고	소속 및 직책	국적	도착	출발
1	진정식(총련)	Jin Jong Sik	陳正植	Rainbow Hotel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 중앙본부 부단장	총련	5/20	5/24
2	홍상진(총련)	Honh Sang Jin	洪祥進	Rainbow Hotel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 중앙본부 사무국장	총련	5/18	5/24
3	김철수(총련)	Kim Chul Su	金哲秀	Rainbow Hotel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 중앙본부 사무국장	총련	5/20	5/24
4	김정원(총련)	Kim Jong Won	金靜媛	Rainbow Hotel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 중앙본부 사무국장	총련	5/20	5/24
5	김진영(총련)	Kim Jin Yong	金珍英	Rainbow Hotel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 중앙본부 정원	총련	5/20	5/24
6	리일만(총련)	Ri il Man	李一滿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고문	총련	5/20	5/24
7	류구채(총련)	Ryu Ku Chae	柳球采	Rainbow Hotel	교토부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고문	총련	5/20	5/23
8	량상진(총련)	Ryang Sang Jin	梁相鎭	Rainbow Hotel	효고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측단장	총련	5/20	5/23
9	구본현(총련)	Ku Pon Hon	具本憲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총련	5/20	5/24
10	은종인(총련)	Un Jong In	殷鍾仁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총련	5/20	5/24
11	정운모(총련)	Jong Un Mo	鄭雲模	Rainbow Hotel	강제연행피해자	총련	5/20	5/24
12	신정재(총련)	Sin Jung Ja	申靜子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총련	5/20	5/24
13	문영석(총련)	Mun Yong Suk	文永碩	Rainbow Hotel	효고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총련	5/20	5/24
14	김순애(총련)	Kim Sun Ae	金順愛	Rainbow Hotel	아이찌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총련	5/20	5/24
15	소라노 요시히로	Sorano Yoshihiro	空野佳宏	뉴)국제호텔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 사무국장(번호사)	일본	5/20	5/23
16	이시다 타다시	Ishida Tadashi	石田 貞	Rainbow Hotel	사이타마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 단장	일본	5/20	5/24
17	히라타 아키히로	Hirata Akihiro	原田章弘	Rainbow Hotel	가나가와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 사무국장	일본	5/20	5/24
18	시미즈 쇼지	Shimizu Shoji	清水昭	Rainbow Hotel	가나가와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	5/20	5/24
19	츠키사키 마사노	Tsukasaki Masano	塚崎昌之	뉴)국제호텔	오사카부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	5/20	5/23
20	테라오 테루미	Terao Terumi	寺尾光身	Rainbow Hotel	아이찌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단장	일본	5/20	5/24
21	다나카 준	Tanaka Jun	田中 淳	Rainbow Hotel	아키타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단장	일본	5/20	5/24
22	시미즈 스미코	Shimizu Sumiko	清水澄子	Rainbow Hotel	아키타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측 공동대표	일본	5/20	5/24
23	오가와 루미코	Ogawa Rumiko	小川ルミ子	Rainbow Hotel	일본부인회 회장(이전 참의원 의원)	일본	5/20	5/24
24	다케우치 야스토	Takeuchi Yasuto	竹内康人	Rainbow Hotel	일본부인회	일본	5/22	5/24
25	와다 켄이치	Wada Kenichi	和田 献一	Rainbow Hotel	시즈오카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회 사무국장	일본	5/20	5/23
					도쿄기부락해방동맹 위원장	일본	5/20	5/23

● 서울대학교 해외 참가자 명단(일본)

번호	이름	영어	한지	숙소	소속 및 직책	국적	도착	출발
26	가토 아키라	Kato Akira	加藤 明	Rainbow Hotel	도기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	5/20	5/24
27	무카이 미도리	Mukai Midori	向井 緑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	5/20	5/23
28	니시자와 키요시	Nishizawa Kiyoshi	西沢 清	Rainbow Hotel	도쿄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	5/20	5/24
29	도노하라 요시히코	Tonohira Yoshiko	殿平善彦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공동대표	일본	5/20	5/27
30	설진철	Sul Jin Chul	薛鎮鉄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공동대표	일본	5/20	5/23
31	호리구치 고우	Horiguchi Kou	堀口 晃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사무국장	일본	5/20	5/23
32	고바야시 히사토모	Kobayashi Hisatomo	小林久公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사무국	일본	5/20	5/23
33	사카시타 아츠시	Sakashita Atsushi	坂下 淳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사무국	일본	5/20	5/23
34	호시노 츠토모	Hoshino Tsutomu	星野 孟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회원	일본	5/20	5/23
35	한혜인	Han Hein	韓惠仁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사무국	일본	5/20	5/23
36	오노테라 마사미	Onodera Masami	小野寺 正己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회원	일본	5/20	5/23
37	요시다 쿠니히코	Yoshida Kunihiko	吉田国彦	Gaya Hotel	강제연행/강제노동회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회원,교수	일본	5/20	5/23
38	김영	Kim Yong	金榮	Rainbow Hotel	바우넷재팬	총련	5/16	5/23
39	김부자	Kim Pu Ja	金富子	Rainbow Hotel	바우넷재팬	일본	5/16	5/23
40	노구치 아마네	Noguchi Amane	野口 弥	Woman's Plaza	바우넷재팬	일본	5/20	5/24
41	나가하라 미치코	Nakahara Michiko	中原道子	Woman's Plaza	바우넷재팬(여성전쟁인권학회 대표)	일본	5/20	5/24
42	츠보카와 히로코	Tsubokawa Hiroko	坪川宏子	etc	바우넷재팬	일본		
43	야노 히데키	Yano Hideki	矢野秀喜	Rainbow Hotel	강제연행네트워크	일본		
44	나츠하라 노부유키	Natsuhara Nobuyuki	夏原信幸	Rainbow Hotel	강제연행네트워크(미쯔비히로시마피복정용공제판지위원회)	일본		
45	후루카와 마사키	Furukawa Masaki	古川雅紀	Rainbow Hotel	강제연행네트워크(제한군인군속재판지위원회)	일본		
46	모치하시 타몬	Mochihashi Tamon	持橋多門	Rainbow Hotel	강제연행네트워크	일본	5/20	5/23
47	아리미즈 켄	Arimitsu Ken	有光 健	Rainbow Hotel	전후보상네트워크	일본	5/20	5/24
48	모리카와 시즈코	Moricawa Shizuko	森川静子	etc	전후보상네트워크	일본	5/18	6/1
49	가와사키 슌지	Kawasaki Shunji	川崎俊二	etc	인권을위한일본노동자연합	일본	5/19	5/23
50	반나이 요시코	Bannai Yoshiko	坂内義子	Woman's Plaza	전후보상실현 일한시민단체	일본	5/20	5/23

● 서울대학교 해외 참가자 명단(일본)

번호	이름	영어	한지	숙소	소속 및 직책	국적	도착	출발
51	오시마 코이치	Ohshima Koichi	大島孝一	Woman's Plaza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대표	일본	5/20	5/24
52	츠치야 코겐	Tsuchiya Koken	土屋公献	Woman's Plaza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국제연대협의회 일본위원회 대표	일본	5/20	5/22
53	니시노 루미코	Nishino Rumiko	西野美子	Woman's Plaza	여성전쟁평화인권학회	일본		
54	안지코 유카	Anzako Yuka	瑠澄由香	Rainbow Hotel	광운대학교 강사	일본		
55	오다가와 고오	Odagawa Ko	小田川興	etc	고려대학교 강사	일본		
56	이치바 준코	Ichiba Junko	市場淳子	etc	한국원폭피해지구원모임	일본	5/20	5/23
57	요네자와 키요에	Yonejawa Kiyoe	米沢清恵	etc	JAPAN ALLA	일본	5/20	5/23
58	요시다 코이치	Yoshida Koichi	吉田好一	etc	국제인권활동일본위원회 대표위원	일본	5/20	5/23
59	시마다 히로시	Shimada Hiroshi	島田 広	Rainbow Hotel	변호사, 후지코시군로정신대 소송	일본	5/20	5/24
60	고마츠 아키히라	Komatsu Akihira	小松昭良	Rainbow Hotel	중국방재심리학연구소	일본	5/19	5/23
61	이나다 요시키	Inada Yoshiki	稲田善樹	Rainbow Hotel		일본	5/20	5/27
62	노부카와 미츠코	Nobukawa Mitsuko	信川美律子	etc		일본		
63	오가사와라 노부미	Ogasawara Nobumi	小笠原 信実	Rainbow Hotel	에비고 강사	일본	5/19	5/23
64	타니사와 오사무	Tanisawa Osamu	谷沢 紀	Rainbow Hotel	친 인권과자유를위한프랑스항공노조연맹 사무총장	일본	5/19	5/23
65	타바 사치코	Taba Sachiko	田揚祥子	Woman's Plaza		일본	5/20	5/24
66	아라야 히로시	Araya Hiroshi	新谷 宏	Rainbow Hotel		일본	5/20	5/24
67	오가타 타카오	Ogata Takao	緒方貴穂	Rainbow Hotel		일본	5/18	5/24
68	이케다 코이치	Ikedda Koichi	池田幸一	Rainbow Hotel		일본	5/20	5/24
69	히라이 히사시	Hirai Hisashi	平井久志	etc(서울거주)	교도통신 서울지국 지국장	일본		
70	노히라 신사쿠	Nohira Shinsaku	野平晋作	Gaya Hotel	피스보트 공동대표	일본	5/20	5/23
71	후쿠다 세이시로	Fukuda Seishiro	福田誠之郎	Gaya Hotel	민주당 石毛鏡子중의원의원 정채비서	일본	5/21	5/23
72	노다 지로	Noda Jiro	野田次郎	GaYa Hotel		일본	5/20	5/24
73	이시이게 에이코	Ishige Eiko	石毛鏡子	Gaya Hotel	민주당 중의원 의원	일본	5/20	5/24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 목적

1. 20세기 일본이 국제법과 인권을 위반한 폭력의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
2.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결속 강화
3.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으로부터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4. 아시아의 화해, 우정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추구

### 조직

1. 한국 : 한국위원회
2. 북한 : 조선위원회
3. 일본 : 일본위원회
4. 대만 : 대만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5. 필리핀 :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6. 미국 :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7. 중국 : 남경대학살기념관

### 추진경과

- 2002. 5. 3 :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아시아지역 심포지엄'에서 국제연대회의체 발족 결의
- 2003. 8.20 : 국제연대협의회를 중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2003. 9.17 : 중국 상해에서 남북 등 7개국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공식결성
- 2003.11.16 : 한국위원회 발족(한국사무국 : 교과서운동본부)
- 2003.11.28 : 한국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03.12. 3 :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 2004. 3.23 : 제2회 서울대회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를 금강산에서 개최
- 2004.5.20-5.24 : 한국 서울에서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개최

### 향후일정

- 2004년 5월, 한국에서 북한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개최
- 강제연행으로 납치된 피해자의 이산가족 현황 파악 및 생존자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 강제연행 피해자 유골 발굴 등 남북, 혹은 남북일 등 차원의 국제적인 공동 진상조사 사업 추진
- UN, ILO에 참여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압박 전개
- 국내, 국제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국제연대협의회 및 피해자증언대회 개최
- 한일협정 정보공개를 통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과거·현재·미래 - 동아시아평화를 향한 대일 과거사청산 운동”

### □ 목적

- 2차대전 종전 60주년 되는 2005년을 대비한 대일과거사운동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
- 우경화되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시민단체(개인을 포함)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일시 : 2004년 5월 20일~5월 24일(23일 남북교류 일정)

□ 주최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 주관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 국제사무국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Tel 82-2-3672-4192, Fax 82-2-3672-4195, Email: japantext@hanmail.net)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한국 서울, 대방동 Tel 02-810-5000, www.seoulwomen.or.kr)

□ 해외참가국 :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미국, 일본, 총 7개국 94명

- 북한 : 리상옥(위안부 피해자), 황중수(강제연행 피해자), 홍선옥(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제연행 유가족협회 등 9명
- 중국 : 강근복(남경대학살 생존자), 왕위민(남경대학살기념관 부관장) 2명
- 필리핀 : 암모니아 바라자디아(위안부), 넬리아 산초(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대표) 2명
- 대만 : 루만메이(위안부 피해자), 후일링(대북부녀구조기금회실무자) 등 4명
- 미국 : 정연진(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등 4명
- 일본 : 정운모(강제동원 피해자), 쓰치야 코겐(일본위원회 대표), 아리미즈켄(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니시노 루미코(바우넷 재팬), 진정식(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홍상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등 73명(조선총련 15명 포함)

□ 전체주제 : “과거·현재·미래 -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대일 과거사 운동”

□ 부문별 포럼 : 각 주제별 최근 활동과 쟁점사안, 국제사회에의 제안

- 일본군'위안부' 문제 : 2000년 이후 최근의 상황과 쟁점
- 희생자와 유골문제 : 군인군속과 강제동원 유골문제
- 강제동원 피해 문제 : 최근의 소송 현황
- 교과서와 군국주의 : 일본우익동향, 2005년 교과서재검정문제, 총선정세

□ 분과토론 : 각 주제별 향후 연대활동을 위한 제안 및 토론

□ 주요행사

- 국제회의(5.21-22) : 개회식, 기조연설, 주제포럼1, 주제포럼2, 분과토론, 폐회식
- 특별전시회(5.20-21) : 각 나라의 도서 및 출판자료, 역사사진 및 사진, 피해자 그림 전시
- 남북교류회(5.23) : 남북 피해자들간의 만남, 역사현장 방문(서대문형무소, 경복궁), 별도초청
- 문화공연(5.22) :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공연 '울림' - 임웅희의 춤 “꽃은 피어 웃고 있고”
- 비디오 상영(5.21) :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국 영상물 시청
- 한민족 증언(5.21) : 남·북·재일·해외피해자들의 증언회(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 명예조직위원장 : 이효재(정대협), 강만길(상지대), 박형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공동조직위원장 : 이수호(교과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서중석(교과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역사문제연구소장, 성균관대 교수), 신혜수(정대협 상임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광동협(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대표, 광병원 원장), 박헌수(한국노총 직무대행)
- 100인 추진위원 : 사회 각계
- 실행위원장 : 양미강(교과서운동본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실행위원회

구분	역할	영역	담당자
총괄팀 (양미강)	총괄팀	총괄진행 및 역할조정	정은정
홍보팀 (서우영)	홍보1팀	국내언론 담당	김영선
	홍보2팀	외신언론 담당	강혜정
의전팀 (윤미향)	의전1팀	해외 참가자 담당	마리오(영), 김은식(일), 이병희(일)
	의전2팀	북한 참가자 담당	윤미향, 김동희
	의전3팀	국내 참가자 담당	박정희, 이희자
	의료팀	피해자 건강 담당	강주혜, 원종선
학술팀 (정혜경)	학술1팀	자료, 통번역 담당	장미라, 박은희
	학술2팀	성명서,분과토론 담당	이신철, 김민철
	통역팀	동시통역, 순차통역	이윤실, 조재현, 민 정 후지이다케시, 김재현, 강혜정, 연지미, 김기연, 이윤원 도희진, 연동숙
문화팀 (김숙진)	문화1팀	전시/비디오/증언	스다가오리, 김점구, 변상철
	문화2팀	문화공연	고용국
	문화3팀	만찬/남북교류	김숙진
행정팀 (최형우)	행정1팀	진행, 지원	민연수, 박김기홍
	행정2팀	재정	이미영
	기록팀	사진, 영상	허현주, 마리오, 민문연(기록팀), 희망

□ 대회 사무국 : 교과서운동본부  
(김숙진 사무처장, 정은정 사무국장, 최형우 대외협력부장, 이미영 총무부장)

- 참가국가·지역 :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미국, 일본 총 7개국
- 한 국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광주유족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독도수호대, 평화시민연대, 대일역사왜곡시정 촉구국민회의
- 북 한 :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대책위원회, 강제연행유가족협회
- 일 본 : 일본위원회,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바우넷재팬 등 관련 단체
- 대 만 : 대만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 필리핀 :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 미 국 :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 중 국 : 남경대학살기념관



**대회일정표**

**5월20일(목)**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도착기자회견	15:00-16:00	- 각국대표, 피해자 기자회견 / 사회 : 양미강(실행위원장) · 발언 : 7개국가 지역(남, 북, 일, 중, 필, 미, 재일) · 인사말, 경과보고	4층 시청각실
각국조정자회의	16:00-18:00	- 각국대표, 조정자회의(비공개) · 회의일정 협의 · 성명서 채택 여부 · 2005년 향후 일정 등	4층 시청각실
환영만찬	18:00-20:00	- 환영만찬(주최측 초청만찬) / 사회 : 곽동협 · 주최측환영사 : 박형규(명예조직위원장) · 각국대표 발언 · 바닥소리 공연	2층 회의실

**5월21일(금)**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차량이동	07:40-08:00	일본참가자(레인보우호텔·가야호텔)	레인보우 출발
아침식사	08:00-08:40	해외참가자, 관계자	3층 대식당
등록	08:40-09:20	대회참가자 접수	로비
개회식	09:20-10:00	사회 : 신혜수(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개회퍼포먼스: 북측 '새와 울림'(성덕여상) - 각국대표 발언	1층 국제회의장
기조발표	10:00-10:30	- 기조발표 : 서중석(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대일 과거사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층 국제회의장
피해자증언	10:30-12:00	- 피해자 증언 남(곽귀훈-원폭), 북(리상옥-위안부), 중(강근복-남경) 대만(루만에이), 필(양모니타)	1층 국제회의장
전체사진촬영	12:00-12:20	다함께(각국 대표자, 피해자, 참가자 기념촬영)	실내(실외)
점심식사	12:20-13:30	다함께	3층 대식당
주제포럼1	13:30-16:00	사회 : 강혜정(대회 국제협력팀장) - 일본군 위안부문제 발표(4) 남(이선아), 북(홍선옥), 일(니시노루미코), 필(벨리아산초), 미(헨리유) - 역사교과서와 군국주의발표(2) : 남(신주백), 북(계성훈)	1층 국제회의장
휴식	16:00-16:30	휴식	로비
주제포럼2	16:30-18:30	사회 : 정혜경(대회 학술팀장) - 강제동원피해 발표(5) : 남(장완익), 북(손철수) 일(소라노 요시히로, 아리미츠 켄) - 집단학살(3): 중(왕위민), 일(고마쯔 아키히라), 재일(은종인)	1층 국제회의장
[특별세션] 비디오상영 피해자 증언	12:00-16:30	- 비디오 상영(5) : 남(2), 북(1), 일(2)	4층 시청각실
	16:30-18:30	- 증언 / 사회 : 김민철(대회 실행위원) 남(이옥선), 북(황중수), 재일(정운모), 대만(정천타오)	2층 회의실
	18:30-21:00	나운규 "아리랑" 상영	4층 시청각실
저녁식사	18:30-20:00	다함께	3층 대식당
각국조정자회의	20:00-22:00	- 공동성명서 협의(비공식) - 일본정부 향후 일정	3층식당VIP실

**5월22일(토)**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차량이동	07:40-08:00	- 일본참가자(레인보우호텔·가야호텔)	레인보우 출발
아침식사	08:00-08:40	- 해외참가자, 국내 관계자	3층 대식당
등록	08:40-09:00	- 참가자 접수	로비
안내	09:00-09:20	- 분과별 내용 및 장소 안내	1층 아트홀
분과토론	09:20-12:00	- 일본군위안부 토론(진행 : 북한) [의제] 국제활동 대응	4층 시청각실
		- 희생자와 유골문제 발표(진행 : 홍상진) [의제] 군인군속과 강제동원 유골문제 : 발표 9편	2층 회의실
		- 강제동원 토론(진행 : 모찌 하시다웅) [의제] 진상규명, 한일협정개정 : 발표 최봉태, 토론 김창록	2층 세미나실
		- 교과서문제(진행 : 안병우) [의제] 2005년 교과서재검정 : 발표 이신철	3층식당 VIP실
점심식사	12:00-13:30	다함께	3층 대식당
폐회식	13:30-15:30	- 공동성명서 채택 및 폐회식 사회 : 임한영(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각 분과별 발표	1층 아트홀
		- 선언문채택 낭독 : 남(이수호-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북, 일 - 폐회사 : 강만길(대회 명예조직위원장)	
휴식	15:30-16:00	- 참가자 휴식	로비
문화공연	16:00-17:30	- 치유를 위한 '울림' : 임응희 춤 "꽃은 피어 웃고 있고"	1층 아트홀
차량이동	17:30-18:30	- 만찬장으로 이동	로비
환송만찬	18:30-21:30	- 환송만찬 / 사회 : 윤미향(대회 의전팀장) - 환송사 : 이호재(대회 명예조직위원장), 각국 대표 - 공연	CCMM 1층 웨딩카페
차량이동	21:30-22:00	- 숙소 도착	CCMM 앞
비공식간담회	22:00-24:00	- 2005년을 대비한 각국 회의	실무자숙소

**5월23일(일)**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아침식사	08:00-09:00	- 해외 참가자	3층 대식당
각국출국	09:00-	- 각국 대표단 출국	로비
차량이동	10:00-11:00	- 서대문형무소 도착	
한민족교류(1)	11:00-12:30	- 서대문형무소 관람 - 다함께 기념촬영	서대문형무소
차량이동	12:30-13:00	- 식당 이동	경복궁
점심식사	13:00-14:30	- 다함께(남측 피해자와 함께)	용수산
한민족교류(2)	14:30-16:30	- 경복궁 관람	경복궁
차량이동	16:30-17:30	- 교류회장 이동	
남북교류회	17:30-20:00	- 한민족한마당 / 사회 : 이신철(실행위원), 방은진(영화감독) 대표자발언 : 남(신법타-대회 명예조직위원장), 북(홍선옥) 재일(진정식), 재미(정연진) 피해자발언 : 남(이희자), 북(황중수), 재일(정운모)	서울팔래스호텔 지하 궁전

□ ソウル大会日程表

5月20日(木)

プログラム	時間	内容	場所
到着記者会見	15:00-16:00	- 各国代表、被害者の記者会見 / 司会：梁美康(実行委員長) ・ 発言(3')：7か国(李秀浩/共同組織委員長,北,日,中,比,米,在日) ・ 挨拶、経過報告	4階 視聴覚室
各国調整者会議	16:00-18:00	- 各国代表、調整者会議(非公開) ・ 会議日程協議・声明文採択の可否 ・ 2005年、今後の日程など	4階 視聴覚室
歓迎晚餐	18:00-20:00	- 歓迎晚餐(主催側による招待晚餐) / 司会：郭東協 ・ 主催側歓迎挨拶：朴炯圭(名誉組織委員長) ・ 各国代表の発言	2階 会議室

5月21日(金)

プログラム	時間	内容	場所
車で移動	07:40-08:00	日本参加者(レインボーホテル・伽倻ホテル)	レインボー出発
朝食	08:00-08:40	海外参加者、関係者	3階 大食堂
登録	08:40-09:20	大会参加者受付	ロビー
開会式	09:20-10:00	司会：申憲秀(大会 共同組織委員長) - 開会パフォーマンス：太鼓の舞い「鳥と響き」(聖徳女子商業高校) - 各国代表の発言	1階 国際会議場
基調発表	10:00-10:30	- 基調発表：徐仲錫(大会 共同組織委員長) '対日過去史運動の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	1階 国際会議場
被害者の証言	10:30-12:00	- 被害者の証言(各 15') 南(郭貴勲-原爆),北(Ri SangOk-慰安婦),中(姜根福-南京) 台湾(盧満妹),比(Ammonita Bulujadia)	1階 国際会議場
全員写真撮影	12:00-12:20	全員(各国代表者、被害者、参加者 記念撮影)	屋内(屋外)
昼食	12:20-13:30	全員	3階 大食堂
主題フォーラム1	13:30-16:00	司会：姜恵楨(大会 国際協力チーム長) - 日本軍慰安婦問題発表(4) 南(李宣泥),北(朝対委),日(西野留美子),比(Nelia Sancho Liao) - 歴史教科書と軍国主義発表(2)：南(辛株柏),北(朝対委)	1階 国際会議場
休息	16:00-16:30	休息	ロビー
主題フォーラム2	16:30-18:30	司会：チョンヘギョン(大会 学術チーム長) - 強制動員被害発表(5)：南(張完翼),北(朝対委),米(チョンヨンジン) 日(公野佳宏,有光健) - 手段虐殺(3)：中(王偉民),日(小松昭良),在日(殷鐘仁)	1階 国際会議場
【特別セッション】 ビデオ上映 被害者の証言	12:00-16:00	- ビデオ上映(5)：南(2),北(1),日(2)	4階 視聴覚室
	16:00-18:30	- 証言 / 司会：朴正淑(ドキュメンタリー監督,映像集団希望) 南(安ジョムスン),北(黄ジョンス),在日(鄭雲模),台湾(鄭陳桃)	2階 会議室
夕食	18:30-21:00	ナ・ウンギョの「アリラン」上映	4階 視聴覚室
各国調整者会議	20:00-22:00	- 共同声明文、協議(非公式) - 対日本政府、今後の日程	3階 食堂VIP室

5月22日(土)

プログラム	時間	内容	場所
車で移動	07:40-08:00	- 日本参加者(レインボーホテル・伽倻ホテル)	レインボー出発
朝食	08:00-08:40	- 海外参加者、国内関係者	3階 大食堂
登録	08:40-09:00	- 参加者受付	ロビー
案内	09:00-09:20	- 分科会別内容及び場所など案内	1階 アートホール
分科討論	09:20-12:00	- 日本軍慰安婦 討論(進行：北) [議題] 国際活動など対応	2階 会議室
		- 遺骨問題 発表(進行：洪祥進) [議題] 軍人軍属と強制動員遺骨問題：発表 9本	4階 視聴覚室
		- 強制動員討論(進行：矢野ひでき) [議題] 真相究明,日韓協定改定:発表-崔奉泰, 討論-金昌祿	2階 seminar室
		- 教科書問題(進行：安秉佑) [議題] 2005年 教科書再検定	3階 食堂VIP室
昼食	12:00-13:30	全員	3階 大食堂
閉会式	13:30-15:30	- 共同声明文採択及び閉会式 司会：任ホニョン(大会 共同組織委員長) 各分科会の発表(各 5') - 宣言文採択朗読：南(李秀浩-大会 共同組織委員長),北,日 - 閉会挨拶：姜萬吉(大会 名誉組織委員長)	1階 アートホール
休息	15:30-16:00	- 参加者 休憩	ロビー
文化公演	16:00-17:30	- 癒しのための「響き」：イム・ウンフィ 舞踊「花は咲いて微笑んで」	1階 アートホール
車で移動	17:30-18:30	- 晚餐会会場へ移動	ロビー
歓送晚餐	18:30-21:30	- 歓送晚餐 / 司会：尹美香(大会 儀典チーム長) - 歓送挨拶：李效宰(大会 名誉組織委員長),各国代表	CCMM 1階 ウェディング・カフェ
車で移動	21:30-22:00	- 宿所への到着	CCMM 前
非公式懇談会	22:00-24:00	- 2005年に備えるための各国会議	スタッフの宿所

5月23日(日)

プログラム	時間	内容	場所
朝食	08:00-09:00	- 海外参加者	3階 大食堂
各国出国	09:00-	- 各国代表団、出国	ロビー
車で移動	10:00-11:00	- 西大門刑務所跡、到着	
朝鮮民族交流(1)	11:00-12:30	- 西大門刑務所跡、観覧 - 全員で記念撮影	西大門刑務所
車で移動	12:30-13:00	- 食堂へ移動	景福宮
昼食	13:00-14:30	- 全員(南側の被害者と共に)	景福宮付近
朝鮮民族交流(2)	14:30-16:30	- 景福宮、観覧	景福宮
車で移動	16:30-17:30	- 交流会場へ移動	
南北交流会	17:30-20:00	- 朝鮮民族ハンマダン/司会：李信徹(実行委員),バンウンジン(俳優/映画監督) 代表者発言：南(辛法陀-大会名誉組織委員長),北(Hong SonOk), 在日(陳正植),在米(チョンヨンジン) 被害者発言：南(李熙子),北(黄ジョンス),在日(鄭雲模)	ソウル・レスホテル

## □ 汉城大会日程表

5月20日(星期四)

活动	时间	内容	地点
记者招待会	15:00-16:00	- 各国代表: 受害者记者招待会/主持梁美康(施行委员长) 发言(3): 7国地域( , 日, 中, 菲, 美, 在日) 问候, 经过报告	4层视听室
各国负责人会议	16:00-18:00	- 各国代表, 负责人会议(非公开) 协商会议日程, 是否采纳声明书 2005年以后日程等	4层视听室
欢迎晚餐	18:00-20:00	- 欢迎晚餐(主办方邀请晚餐)/主持: 郭东协 主办方致欢迎词: 朴炯圭(名誉组织委员长) 各国代表发言	2层会议室

5月21日(星期五)

活动	时间	内容	地点
车辆移动	07:40-08:00	日本参加者(虹桥宾馆, 珈椰宾馆)	宾馆出发
早餐	08:00-08:40	海外参加者, 相关人员	3层餐厅
报到	08:40-09:20	大会参加者报到	大厅
开幕式	09:20-10:00	主持: 辛惠秀(大会共同组织委员长) - 开幕表演: 北韩舞蹈 鸟与回音(成德女商) - 各国代表发言	1层国际会议室
基调发表	10:00-10:30	- 基调发表: 徐仲锡(大会共同组织委员长) '对日历史运动的过去和现在以及未来'	1层国际会议室
受害者证词	10:30-12:00	- 受害者证词(各15) 南(郭贵勋-原爆), 北(Ri sang ok-慰安妇), 中(姜根福-南京), 台湾(卢淑妹), 菲律宾(Ammonita)	1层国际会议室
全体照相	12:00-12:20	全体(各国代表, 受害者, 参加者照相留念)	室内(室外)
午餐	12:20-13:30	全体	3层餐厅
主题讨论1	13:30-16:00	主持: 姜惠贞(大会国际协力科长) - 日军慰安妇问题发表(4) 南(李宣泥), 北(赵大伟), 日(西野美子), 菲律宾(Ammonita) - 历史教科书与军国主义发表(2): 南(辛株柏), 北(赵大伟)	1层国际会议室

休息	16:00-16:30	休息	大厅
主题讨论2	16:30-18:30	- 主持/丁惠景(大会学术科长) - 强制动员受害发表(5): 南(张完翼), 北(赵大伟), 美(Yeon Jean chung), 日(公野佳宏, 有光健) - 集体屠杀(3): 中(王伟民), 日(小松昭良), 在日(殷仲仁)	1层国际会议室
【特别节目】 上映录像 受害者证词	12:00-16:00	- 上映录像(5): 南(2), 北(1), 日(2) - 证词/主持: 朴正淑(纪录片导演, '希望'音像集团)	2层会议室
	16:00-18:30	南(安正顺), 北(黄仲洙), 在日(丁云模), 台湾(陈涛中)	
	18:30-21:00	'阿里郎' 上映	
晚餐	18:30-20:00	全体	3层餐厅
各国负责人会议	20:00-22:00	- 共同声明书协议(非公开) - 日本政府以后日程	3层餐厅VIP室

5月22日(星期六)

活动	时间	内容	地点
车辆移动	07:40-08:00	- 日本参加者(虹桥宾馆, 珈椰宾馆)	宾馆出发
早餐	08:00-08:40	- 海外参加者, 国内相关人员	3层餐厅
报到	08:40-09:00	- 参加者报到	大厅
向导	09:00-09:20	- 各分科内容及地点向导	1层文艺大厅
分科讨论	09:20-12:00	- 日本慰安妇讨论(进行: 北韩) [议题] 国际活动对应	3层准备室
		- 遗骨问题发表(进行: 洪祥进) [议题] 军人军属及强制动员遗骨问题: 发表9篇	2层研讨室
		- 强制动员讨论(进行: Yano Hidaki) [议题] 究明真相, 韩日协定修改 发表: 崔奉泰, 讨论: 金昌禄	2层seminar室
		- 教科书问题(进行: 安秉佑) [议题] 2005年教科书再审定	3层餐厅VIP室
午餐	12:00-13:30	全体	3层餐厅

闭幕式	13:30-15:30	- 共同说明书采用及闭幕式 主持：任俊列（大会共同组织委员长） 各分科发表(各 5) - 宣言文采纳朗读：南（李秀浩-大会共同组织委员长），北，日 - 闭幕词：姜万吉（大会名誉组织委员长）	1层文艺大厅
休息	15:30-16:00	- 参加者休息	大厅
文化公演	16:00-17:30	- ‘回声’：舞蹈‘花开花笑’	1层文艺大厅
车辆移动	17:30-18:30	- 去晚餐场所	厅
欢送晚餐	18:30-21:30	- 欢送晚餐/主持：尹美香（大会典礼科长） - 欢送辞：李孝宰（大会名誉组织委员长），各国代表	CCMM 1层咖啡厅
车辆移动	21:30-22:00	- 到达宿舍	CCMM 前
非公开恳谈会	22:00-24:00	- 为 2005 年作准备的各国会议	宿舍

5月23日（星期日）

活动	时间	内容	地点
早餐	08:00-09:00	- 海外参加者	3层餐厅
出国	09:00-	- 各国代表出国	大厅
车辆移动	10:00-11:00	- 西大门刑务所到达	
韩民族交流(1)	11:00-12:30	- 西大门刑务所参观 - 照相留念	西大门刑务所
车辆移动	12:30-13:00	- 餐厅移动	
午餐	13:00-14:30	- 全体（南边受害者一起）	景福宫附近
韩民族交流(2)	14:30-16:30	- 参观景福宫	景福宫
车辆移动	16:30-17:30	- 交流会场移动	
南北交流会	17:30-20:00	- 韩民族一堂/主持：李信澈（施行委员），方尹珍（演员，电影导演） 代表者：南（辛法陀-大会名誉组织委员长），北（Hong Son ok），在日（陈正植），在美（Yeon Jean chung）发言 受害者发言：南（李熙子），北（黄仲洙），在日（郑云模）	Palace 酒店

## Seou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Past, Present, and Future - movement of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 1. Abstracts

#### Purpose

- To commemorate the year 2005,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and to mark the year as the turning point of the current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wrongful history.
- To reinforce the network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gainst the rise of the Right in the Japanese government

**Date:** May 20th ~ May 23rd. (\* the 23rd is for the exchanges between two Koreas)

**Sponsor:**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Host:** Korea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Secretariat:** Civilian Movement for Correcting Japanese Distorted Textbook

(Tel 82-2-3672-4192, Fax 82-2-3672-4195, Email: japantext@hanmail.net)

**Venue:** Seoul Woman's Plaza (Daebang-dong, Seoul, Korea)

**Accommodation place:** Seoul Woman's Plaza (Japanese participants: Rainbow Hotel)

**Participating States and regions:** ROK, DPRK,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the USA, Japan.

**Keynote Speech:** Past, Future and current situation of Campaign for the Japanese wrongful history and for the Peace of Northeast Asia

**Section Forums:** Recent movements and issues in each field, and sugges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Sexual Slavery' for Japanese Military: Changes since 2000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 The damage from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status of the recent legal suits and other related issues
- The history textbook and the Right in Japan: the rise of the Right in Japan, the trends of Japanese politics after the general election, and the related issues of forthcoming authorization of national textbook in year 2005
- The invasion war and Massacre : the release of the atomic bomb, the 731 unit, Nanking etc.,

**Section discussion:**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the coalition activity for each issue

#### Special Event

- Special Exhibition: Exhibitions of publications, books, historic and other related photos, and pictures done by the victim
- Interchanges of Two Koreas: Gatherings of North and South Korean victims, Visits to historic sites
- Cultural Performance: A performance that delivers the message of "cure" for the victims
- Testimonies and Screening: For citizens, testimonies from the victims and visual materials are prepared.

**Translation:** Simultaneous Translations are provided for Japanese, English and Chinese (Section Forum)

Program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Schedule	Program	Details	Place
May 20 (Thu)	Arrival press conference 15:00-16:00	- Representation of each country and regions, Press interview / Host: Yang Mi-Kang(Executive Director of Committee) - Speech: Seven countries (ROK, JPN, USA, CHN, Phil, KOR-JPN) - Greeting speech, Announcement of event	Audiovisual Room at forth floor
	Coordinators' meeting 16:00-18:00	- Representation of each country and regions, coordinator meeting (closed) - Deliberate the Conference Schedule/Concern about adapting a statement/Schedule up-coming 2005 event	Audiovisual Room at forth floor
	Welcoming Party 18:00-20:00	- Welcoming Party (party hosted by the host org, special guest)/Host: Kwak Dong-hyup - Host Org greeting : Park Hyung-Kyu(Honored Committee Chairman) - Speech in each country	Conference room at second floor

	Section forum 2 16:30-18:30	- Presentation about the issue of Forced Labor(5): ROK(Jang, Wan-ick), DPRK(Son,Chol-su), Japan(Sorano Yoshihiro, Arimitsu Ken) -Massacre (3): China (Whang Wiemin), Japan (Akihira Komatsu), Korean resistered in Japan (Jong in,Eu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first floor
	Dinner 18:30-20:00	- Dinner time	Dinning room at third floor
	[Special Section] Screening & Survivor's Testimony 12:00-20:00	- Screening (12:00-16:30) / 5 countries and regions Video - Survivor's Testimony (16:30-18:30) / DPRK(Hwang, Jyong-su), ROK(Lee, Ok-sun), Korean residents in Japan(Jyong Woon-mo) Taiwan(Cheng ChenTao) - Na Woon-Kyu "ARIRANG" (18:30-20:00) Screening schedule	Audiovisual Room at forth floor
	Coordinators' meeting 20:00-22:00	- Discussion of joint-statement: joint- statement, Japanese government,(unofficial) - Up-coming schedule	VIP room at the third floor

Schedule	Program	Details	Place
May 21 (Fri)	Movement 7:40-8:00	- Participants of Japanese (The Rainbow Hotel)	Move from the hotel
	Breakfast 8:00-8:40	-Foreign participants, attendants	Dinning room at third floor
	Entry 8:40-9:20	Entry the conference participants	At the lobby
	Opening ceremony 9:20-10:00	Host: Shin Hei-soo (Co-committee chairman) -Opening performance: 'Bird and Echo' -Speech of each nation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first floor
	Keynote Announcement 10:00-10:30	Keynote Announcement: Seo Jung-suk(Co-committee chairman) 'Past.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f Anti-Japanese Historical issu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first floor
	Survivor's testimony 10:30-12:00	- Survivor's testimony (15minutes each) OK (Kwak Kyi-hoon), DPRK(Lee Sang-ok), China(Kang Gun-bok), Taiwan(Luan mei) Philippines (Ammonit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first floor
	Photo 12:00-12:20	-Photo with all participants	In(out)door
	Lunch 12:20-13:30	- Lunch time	Dinning room at third floor
	Section forum 1 13:30-16:00	- Presentation about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4): 15 min for each ROK(Lee Sun-ea), DPRK(Hong Son-ok), Japan(Nishino Rumoko), Philippines (Nelia Sancho), USA(Henry Yoo) - Presentation for Japanese distorted text book and Japan's right(2): ROK(Shin Jyu-back), DPRK (Kye, Sung-hu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first floor
	Intermission 16:00-16:30	Intermission	At the lobby

Schedule	Program	Details	Place	
May 22 (Sat)	Movement 7:40-8:00	-Participants of Japanese (The Rainbow Hotel)	Move from the hotel	
	Breakfast 8:00-8:40	-Foreign participants, attendants	Dinning room at third floor	
	Entry 8:40-9:00	Entry the conference participants	At the lobby	
	Information 9:00 9:20	Inform contents of each section and place	Art hall at first floor	
	Section Discussion 9:00-12:00		-Sexual slavery (host: DPRK) [discussion]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Audiovisual Room at forth floor
			- Ashes Issue (host : Hong Sang-Jin) [Announcement] Forced labor's Ashes : 9 reports	Conference Room at second floor
			-Discussion: Forced labor(Host: Mochihashi Tamon) [Discussion] Disclosure, Amendment of ROK-Japan diplomatic agreement/ inquire into the actual state of forced labor [Announcement] Choi Bong-Tae [Discussion] Kim Chang-Rok	Seminar room at second floor
	Lunch 12:00-13:30		- Distorted Japan textbook (host: Ahn, Byungwoo) [Discussion] re-approval about the Textbook in 2005 [Announcement] Lee Shin-cheol	VIP Room at the third floor
			- Lunch time	Dinning Room at third floor
	Closing Ceremony 13:30-15:30		-Adopting a joint-statement, the closing ceremony. Host: Im Hun-young (Co-committee chairman) Section announcement (5 minutes for each) -Adopting declaration: ROK(Lee Sue-ho), DPRK, Japan, -Closing ceremony announcement: Kang man-kil (Honored conference committee Chairman)	Art hall at the first floor
	Intermission 15:30-16:00		- Intermission	At the lobby
	Cultural Performance 16:00-17:30		The theme of 'echo for cure' : Dancing of Im eung-hee 'Flower with a smile'	Art hall at the first floor
	Movement 17:30-18:30		Move to dinner room	At the lobby
	Farewell dinner 19:00-21:00		- Farewell dinner (special guest) - Farewell announcement, All representative makes speech	Wedding café at CCMM

Movement 21:30-22:00	Arrive at hotel	At hotel
Round Table (unofficial) 22:00-24:00	- preparation of up-coming conference in 2005(unofficial)	At hotel

Schedule	Program	Details	Place
May 23 (Sun)	Breakfast 08:00-09:00	Foreign participants	Dinning room at the third floor
	Departure 9:00	Departure of each nation's representation	robby
	Movement 10:00-11:00	Arrival at SEODAEMOON Prison	
	North and South Korean interchange affairs (1) 11:00-12:30	Viewing the Prison Photo with all participants	At SEODAEMOO N Prison
	Movement 12:30-13:00	Move to the restaurant	Kyung-bok Palace
	Lunch 13:00-14:30	Lunch time	YONGSUSAN
	(2) 14:30-16:30	Viewing KYUNGBOK palace	KYUNGBOK Palace
	Movement 16:30-17:30	Conference Room for interchange Affairs	
	North and South Korean interchange 17:30-20:00	North & South co-host event/Host: Lee Shin-Chul(committee member), Bang euen-Jin(actress and director) Representation speech: South Korea, North Korea, KOR-JPN, KOR-USA Victim speech: South Korea, North Korea, KOR-JPN	Seoul Palace Hotel

## Preparations for Delegations

### 1. Presentation(each country)

- Presentation manuscript: until May 8(15 minutes presentation)
- Presentation quantity: 3 pages in A4 size
- Presentation languag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an-Japanese, Korean-Chinese, Korean-English)
- Presentation theme:
  - ROK: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orced labor, History distortion
  - DPRK: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orced labor, History distortion
  - Japa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Rumiko Nishino ), Forced labor (Yoshihiro Sorano and two more people), Massacre (Akihira Komathu, Wun Jyong,in)
  - China: Massacre (Wan Wi,min)
  - Philippines: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Neria Sancho)
  - USA: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arry Fisher)

### 2. Survivor's testimony and Introduction of each organization's situation

- Testimony time:
  - [ May 21 10:30-12:30 (Plenary session) ]
  - Intended survivor: ROK(Kwon Kyi-hoon /Atomic Bomb Victim), DPRK(Lee Sang-ok /Sexual slavery), China(Kang Gun-bok / Nanking victim), Taiwan(Lu anmei / Sexual Slavery), Philippines (Ammonita / Sexual Slavery), Netherland (1),
  - Testimony time: less than 15 minutes

#### [May 21 afternoon 3:00-6:00 (Special Testimony)]

- Intended survivor: DPRK(Hwang Jyong-su /Forced labor), ROK(Sex slave), Korean residents in Japan(Jyong Un-mo / Forced labor)
- Testimony time : less than 20 minutes

- List of survivor who testify, the paper of testimony and profile : until May 4 by fax or e-mail
- Introduction of organization and participant: A4 1sheet until May 4

### 3. Representation statement of each country

- Speech at Press interview of each national and regional delegation: less than 3 minutes to each country

- Speech at Reception dinner : less than 3 minutes to each country
- Speech at Farewell dinner : less than 3 minutes to each country
- Speech at interchange North and South Korea: less than 5 minutes to each country- ROK, DPRK,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 American
- Survivor's speech at Interchange party of North & South: less than 5 minutes to each country - ROK(1), DPRK(1), Korea-Japanese(1)
- Speech at Opening ceremony: less than 5 minutes to each country and region - ROK, PROK, Japan, Philippine, China, Taiwan
- Speech at Closing: less than 5 minutes ROK
- Declaration of joint speech: ROK, DPRK, Japan

#### 4. Section discussion and a coordinator meeting (argument about this later)

- Attendance: Representation of each country and region, coordinator person in charge one or two persons
- First coordination meeting of each country and region : May 20(Thu) afternoon 3:00-5:00  
meeting schedule deliberations, statement adoption propriety and future
- Second coordination meeting of each country and region : May 21(Fri) afternoon 8:00-10:00  
discuss about contents of the statement and decision
- Closed Round-table : May 22(Sat) afternoon 10:00-12:00 (unofficial)  
Preparation, correspondence, sharing information for up-coming conference in 2005

#### 5. Checking individual participant : notice until May 3

- confirm and announce of discussion in each section
- list your Chinese character, English name position and post
- list your E-mail, Phone number(available)

#### 6. Screening and Exhibition

- If you have a video for screening : Less than 20minutes, title, caption etc notice (until May 3)
- Goods for Exhibition : book, material etc goods notice (until May 3)

#### 7. Interpreter

- International conference (May 21)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an-Japanese, Korean-Chinese, Korean-English)
- Section discussion(May 22)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an-Japanese), Whisper interpretation

(Korean-Chinese, Korean-English)

#### 8. Receipt concern(in supporting case)

- : Invoice, Economy class

#### 9. Departure, arrival and transportation concern

- inform departure and arrival schedule (ASAP)
- The Council is to guide from Incheon-international Airport (individual participant: please check 11-2)
- Tel: 82-2-3672-4192,

#### 10. About place of conference and hotel, meal

- Place of conference :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rt hall and seminar room in Seoul Women's Plaza
- Meal: Seoul Women's Plaza(breakfast, lunch, dinner) and another place
- Hotel:

##### Seoul Women's Plaza

Address: 345-1 Daebang-dong, Dongjak-gu, Seoul

Tel: 82-2-810-5000(TEL), 82-2-810-5100(Fax)

URL: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Stay: Participant from abroad and Japan

##### Rainbow Hotel

Address: 98-2, GalWol-dong, Yongsan-Gu, Seoul,

Tel: 82-2-792-9993-5(Tel), 82-2-792-9996(Fax)

URL: [www.lodge-rainbow.com](http://www.lodge-rainbow.com)

Stay: Participant from Japan

Note: It takes about 15minutes to conference hall.

(subway 1line, from Nam-young station to Dae-pang station 4 stops)

#### 11. Preparation for each participants(Japan, USA, Taiwan etc)

##### 1) Participating expense

Schedule : May 20 - May 23 (Three nights and four days)

Expense :

Meal expense : 150.000won (Participating expense 20.000 won, Reception dinner, Farewell dinner, Breakfast 3 times, Lunch 2 times, dinner 1 time)

Stay expense : 165.000 won (3 nights\_ 55,000won, single room - Rainbow Hotel)

135.000 won (3 nights\_ 45,000won, single room - Seoul Women's Plaza)

Transportation expense : limousine(high class 11,000 won, General type 6,500won)

Note : Check a name of participant in the list by own (a possibility of changing)

**2) Traffic**

Refer to hotel website when arriving personally, (Flight and Hotel fees are charged personally)

**[Seoul Women's Plaza : using limousine 6,500won]**

· Incheon airport - get off Yeongdeungpo station (Bus no.608, Gate No 6A, an hour) - Daebang Seoul Women's Plaza (15minutes by taxi)

**[Rainbow Hotel : Using limousine 6,500won]**

· Incheon airport - get off Namyung-doug (in front of Sookmyung ) (Bus no.601, Gate No 5B, an hour) - RainbowHotel (5 minutes by walk)

**3) Hotel refer to near sketch**



## 일본의 과거청산과 국가주의

서 중 석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국제연대협의회서울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성균관대학교수

### 1.

우리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일본의 과거청산만이 회개와 화해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緊要하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 해도 2000년 12월에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열었고, 2002년 5월에는 북의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과거청산을 외면한 일본교과서문제가 다시 발생한 2001년부터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지에서 여러 형태의 국제학술회의를 가졌고, 활발히 연대활동을 펴왔다. 그것은 동아시아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한·중·일 연대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을 2002년 3월 중국 남경에서 제1회대회를 가졌고, 2003년 2월에는 도쿄에서 제2회대회를 가졌으며, 올해 8월에는 서울에서 제3회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일·중·한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역사교과서부교재 편집회의도 수시로 열려 이제는 집필완료단계에 와 있다.

금년 3월에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대단히 뜻깊은 집회가 있었다. 일본군성노예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水曜시위'가 한국의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 600번째로 열린 것이다. 이 집회는 한국의 마산 울산 등의 도시와 일본 미국 필리핀 대만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수요시위'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미야자와 기이찌 일본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수요일 낮 12시에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 강제연행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어언 600회를 맞이한 것이다. 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니의 "대사관앞에 처음 나올 때는 머리가 검었는데 어느새 하얗게 썩네요"라는 말속에서 우리는 피해자할머니의 가슴에 맺힌 슬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다. 한국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집회를 보고받으면서도 그때마다 할머니들 요구를 일축한 일본정부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반문명적 정부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캠페인은 세계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적극적인 동조를 받았다. 부분적이지만 일본 사법부도 진실을 인정하는 판

결을 내렸고, 문제의 일본교과서는 학교로부터 배척당했다.

1993년 6월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성노예문제 등에 효과적인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1994년 1월 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는 일본군성노예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의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1996년 3월에 개최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유엔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일본군성노예에 대한 법적 책임 수락,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실시, 특별행정재판소 설치, 일본군성노예 징용 등의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관련 교과과정에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유엔인권소위원회 산하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맥두걸은 1998년 8월 발표한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위안소 설치 책임자 기소 의무를 확인했다.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결의는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도, 같은 시기 미국 캘리포니아하원에서 결의되었다.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이 강간과 성노예 등 인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유죄라고 판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여러 차례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고, 2001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스와미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성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재판소도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진실과 정의를 옹호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소송(1997. 9.), 일본강관 소송(1999. 4.), 후지코시 소송(2000.7.), 하나오카 소송(2000.11.) 등에서는 해당기업과 피해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중국인 강제연행과 관련된 류렌진소송에서 도쿄지방법판소는 전후구제를 태만히 한데 대해 일본정부에게 2000만엔 지불명령을 판결했다.(2001. 7.) 2002년 3월과 2004년 3월에도 강제연행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 2002년 후쿠오카지방법판소는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제척기간을 제한해 미쓰이광산이 중국인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1,10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에 니가타지방법판소는 중국인 강제노동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일본정부와 업체는 원고 1인당 800만엔씩 모두 88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처우였다. 일본인 피폭자는 1998년까지 약 2조5천억엔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본인 피폭자의 10분의 1정도인 한국인 피폭자는 끈질긴 투쟁을 거쳐 1990년에 일본정부로부터 단발성 위로금으로 40억엔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2002년 12월 오사카고등재판소는 郭貴勳의 소송에 대해 “피폭자는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한국인 피폭자가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번은 일본을 오도록 해 고령 또는 병환으로 일본에 갈 수 없는 피폭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고, 무료건강진단이나 의료비지급도 일본국내에 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북의 피폭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원호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57년의 세월이 흘러 피폭자가 거의 다 사망한 2002년에야 간신히 인정된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문은 표면적으로만 볼 때 일본교과서문제였다. 2001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떨어뜨리는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웃 나라 침략과 군국주의 파시즘의 아시아침략을 미화시키고, 일본군성노예문제나 한국·동남아 등지에서의 주민학살, 731부대의 세균전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 남경대학살을 애매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의 기만적인 위선책을 적나라하게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2002년에 통과된 고등학교용 『최신일본사』는 한층더 침략전쟁을 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 대한 침략을 미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헌법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등의 치열한 반대운동으로 채택률이 0.039%(521권)에 머물렀고, ‘일본회의’에서 만든 『최신일본사』는 2002년에 1.83% (1,056권, 신판)밖에 채택되지 않았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세계 양심세력의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권위있는 인권기구나 인권단체, 국제회의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책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나 일본사회는 양심의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사실 인정, 공식 사죄, 진상규명,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피해자 배상,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 어느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한일본대사관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를 600번이나 지켜봤으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다만 600차 수요시위에서 처음으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전달한 성명서 등을 받아갔을 뿐이다.

일본정부와 일본사회가 미국이 일본계 전시강제수용소피해자보상금으로 1인당 2만달러 등을, 캐나다도 역시 똑같은 보상금으로 1인당 2만1천 캐나다달러를 지급했고,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정부에서도 자국민의 일본군포로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다. 이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범죄은폐. 법적 책임 회피수단이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간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간에 분열을 극렬히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이 2001년 7월부터 나치 치하의 민간기업이 전시에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해 ‘기억, 책임, 미래’라는 표어아래 총액 100억마르크를 약 120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를 말미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등의 기업이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아

래 탄광 등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 등을 논의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1988년까지 독일의 전후배상액은 국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해 비교할 경우 일본의 65배를 상회하고, (아사히신문, 1993. 8. 18.) 1991년 걸프만전쟁때 일본은 전쟁비용으로 무려 130억 달러를 군말없이 미국한테 내놓았고, 1945년에서 1990년까지 일본인 전쟁희생자 원호비, 전몰자유족연금 등으로 31조엔을 썼는데, (1991년에 출판된 한 책자에서는 40조원을 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石坂浩一 등의 『日朝조약에의 시민제언』)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와 한국에 준 배상액 보상액은 6,565억엔(일본이 상실한 재외자산을 합치면 약 1조엔임)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는 세계의 여론에 대해서, 권위있는 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의 한 배경이 선정주의 매스컴, 선동정치와 결합되어 있는 일본의 우경화이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선 일본사회의 자폐증적인 성격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 2.

프랑스의 한 교수가 20세기 마지막 해에 쓴 글에서 오늘날 전세계에 '회개와 화해의 글로벌화'라고 부를만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1980,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남아프리카에서나 독일 등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회개와 화해, 과거청산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 '학살과 만행의 20세기'를 '희생자의 심정'으로 기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일본만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계의 한 섬처럼 20세기가 다갈 무렵에 '잃어버린 10년'을 보상이나 하려는 듯이 우경화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21세기를 넘어서자 한층더 심하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양식 있는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달래듯이 말했지만, 현재의 사태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광풍아래서는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만행 등에 대해 회개나 반성, 사죄와 배상·보상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본은 20세기말부터 기회만 생기면 국가주의 군사대국화의 길로 달려가려고 한다. 세계 여론의 빗발치는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인 2003년 6월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안 등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켜 우익들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흥분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면 갈수록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불안과 의혹의 시선으로 일본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이웃나라의 군사력을 핑계로 군국주의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흡사 20세기초에 러시아가 한국을 차지할 것 같아서 자신이 침략했다고 강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억지 논리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군비지출국이고, 자국내에 8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8t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갖고 있으며, 유럽의 재처리시설들도 35t을 쌓아놓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2003년 5월 참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3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1954년 자위대발족 이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의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라고 발언하고 유사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도 위험천만한 발상이지만, 아베 신조가 자민당간사장에 발탁된 것은 우익에 영합한 감쪽쇼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할만하다. A급 전범으로 수상을 두 번 지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자 아베 신타로의 아들인 아베 신조는 1997년에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을 만들고, '위안부'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일수교를 추진하여 '국적'취급을 받고 후퇴한 일본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대신 대북 교섭 책임자가 되기도 했던 대북 강경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리고 한국과 대륙침략의 발판이 된 러·일전쟁 개전 100주년을 맞는 금년 2월 일본열도가 수상한 열기에 휩싸였다. 극우신문들이 '러·일전쟁으로부터 100주년, 국민의 전쟁' 등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낸 것은 그렇다 치고, 의도적으로 러·일전쟁 개전일인 2월 8일에 맞춰서 제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의 전투지역에 파견된 육상자위대 본대 1진 90명이 이라크의 사마와에 입성한 것은 이웃나라에 대해 도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일본인들이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을 '영광의 제국역사'가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제복'(군인)에 대한 호감을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나아가 일본 의원 43명은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2월 10일 메이지신궁을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러·일전쟁을 배우는 모임'을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이 글을 쓰기 며칠전 한 교수가 요즈음의 일본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예전의 일본은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마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 조선학교 한 여학생이 치마를 칼로 찢기는 등 폭행 폭언이 잇달아 일어났다. 한 단체에서 2002년 11월 30일부터 2003년 3월 20일까지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칸토오지역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 2,710명을 상대로 한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중 522명이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폭행 폭언은 여학생일수록 또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당했다. 나 어린 학생들은 부모한테서 들은, 1923년 9월 칸토오대지진때 있었던 조선인대학살이 떠오를 정도였다고 한다.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인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자택주차장에서 2003년 9월 폭발물이 발견된 것도 놀랍지만,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폭탄을 장치한 것은 당연한 얘기다"라고 공공연히 발언한 것은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발언이 있는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0월 이시하라는 '일본인납북자를 구하는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무력침범이 아니고 조선인의 총의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인간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도대체 이러한 인물이 다른 지역도 아닌 도쿄도지사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또 장래 총리로 유망시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본인납북자문제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이 13명의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재발방지의 뜻을 표명한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납북 생존자 5명이 일시귀국 조건으로 일본에 돌아온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명히 이들 5명을 평양으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깨고 이들 5명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어 이들의 가족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국교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은 횡포에 다름아니다. 무역과 송금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금년 3월 졸업식에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 장학관들을 각 학교로 파견해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감시한 것도,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77개교, 176명의 교사에 대해 기미가요 제창때 기립하지 않았다고 경고조치를 하거나 신년도 재계약을 취소한 것도 일제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한다. 최근 이라크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정부 일본사회의 '이지메'도 정말 이해가 안간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분노와 의혹을 특히 강하게 갖게 한 것이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그에 대한 강변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에는 도조 전총리 등 A급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고, (1978. 10.) 그와 함께 전쟁행위를 명령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처벌받은 B·C급 전범과 중일전쟁중 전사한 대장·중장 등 다수의 일본군지휘관이 있다. 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 신사에는 대만 출신자 2만8천여명, 조선출신자 2만1천여명이 합사되어 있는데, 야스쿠니신사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합사철회요구를 거부했다.

고이즈미총리는 2001년 4월 취임 이후 매년 한차례씩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는데, 금년에는 교묘하게 1월 1일 기습 참배했다. 그리고는 2월 10일 중의원에서 A급 전범 합사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월 28일에는 "왜 외국인이 반대하는지 도대체 이상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한 나라의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악당"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후쿠오카지방법원에서 4월 7일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헌법 20조 3항(정교분리)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직후 "개인적 신조에 기초한 참배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라고 늘어놓고 기자회견 도중 무려 16번이나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문제의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한테 뒤질세라 "총리의 참배는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위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고이즈미나 아베의 저항은 이들이 삼권분립원칙이나 법을 존중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후쿠오카재판소의 가메카와(龜川清長)재판장이 적시한대로 고이즈미는 헌법상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1991년 1월 샌다이교등재판소에서 "공식참배는 헌법 제20조 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1992년 2월 후쿠오카고등재판소에서 "공식참배를 계속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것 또한 확정되었다. 고이즈미총리가 사적 참배인 것처럼 우기는 것은 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로서, 일본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가 참배한 것은 연미복을 입었던 금년처럼 기모노차림이던 총리가 참배한 것이다.

고이즈미총리가 도조 등 전범을 영웅인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비유를 한 것은 정신상태가 이상하지 않은가, 과연 문명국에 사는 사람인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도조 등 전범들은 인류의 적인 히틀러와 똑같은 무리인 군국주의 파시스트들로서, 비인간적 반문명적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명을 숨지게 하고 수억의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남경학살 등의 수많은 학살, 세균전 화학전 등의 책임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일본인이 아닌, 다른 나라사람으로서 일본한테 똑같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일본인들은 한 나라의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악당이라고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이즈미 등은 러·일전쟁에서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신사참배를 왜 외국인이 반대하는지 도대체 이상해서 견딜 수 없다는 발언에는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러한 발언까지 나왔는지 정말 이상해서 견딜 수 없다. 전범, 침략전쟁 수행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일제의 군국주의 국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어젯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군국주의 국가주의 군사대국화로 치닫게 하는 총리의 신사참배를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짓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황제 파시즘하의 황도교육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잘 아는 우리로서는, 똑같은 페이지에서조차도 독일의 침공은 침공이라고 사실대로 쓰고, 일본의 침략은 '진출'(2회), '진주' 등으로 표기한 것이(『최신일본사』 248쪽) 말해주는 바처럼, 뻔뻔스럽게 침략을 침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대일본주의 군국주의를 고취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한 현 일본정부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와 똑같다.

### 3.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일협정 개정이 요구된다. 한일협정 개정의 필요성은 학계 등에서 그간 꾸준히 주장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여야의원 33명이 '북일수교협상과 관련 일제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한일기본조약이 북일수교 협상의 준거틀로 제시되어서도, 북일수교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역설하고, 북일수교에서는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문제를 확실히 짚고넘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을사조약 정미7조약 한일합병조약이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북일수교에서는 선언할 것을 강조했다.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의 공동성명에서도 일제의 과거청산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정부는 잘못된 한일협정을 폐지하고 즉각 재체결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서양 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개정운동을 벌여 1890년대 말까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과 새롭게 조약을 맺었다. 또 자민당

정부는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힘을 쏟아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0년 5월 미일신안보조약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 일본군성노예문제다. 이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일협정이 체결된 바, 조약개정에서 중시되는 '예견치 않았던(not foreseen) 사정의 근본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일협정에서 을사조약 등의 무효문제,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 등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새 조약에서는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해서 한일회담이 밀실에서 '홍정'되었다고 하여 당시에 거대한 반대운동에 부닥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 새 자료가 많이 발굴되었고,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죄도 새 협정에는 명시해야 한다.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다.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을 극히 일부의 피해자에게만 소액을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이 협정이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배상·보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배상·보상재판에서는 시효,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국가 무책임론, 별개회사론 등을 통해 기각되었는데, 미국 한국 등지에서 소송에 대한 방어논리가 하나의 배경을 이루어, 최근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소멸론이 일본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한일협정 개정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도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신안보조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 한·미·일 3각안보체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세 나라 정부는 북 및 중국, 소련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 미·일과 중·러 관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2000년에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2002년 9·17북일공동선언도 동아시아 변화를 선명히 보여준다.

한일협정 개정이 쉽지 않으면, 한일 두 나라 정부가 '공동선언' 또는 '합동해석'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또 북일조약에서 과거청산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한일협정에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관련해,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북일수교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촉구한다. 북일수교는 동아시아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회개와 화해속에 평화와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일본이 9·17선언에서 "과거 식민지배로 조선인들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에 따라 배상·보상을 하는 것은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본과 어깨를 함께 하여 아시아는 새 기획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총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오히려 과거청산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또 자민당소속 중·참의원 80여명이 가입해 있는, 아베 신조가 주동한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에서는 금년 2월 회의에서 어떤 시험문제가 나온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역사교과서에서 '강제연행'관련 기술내용이 삭제되도록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초등학교용 사회교과서에서 강제연행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출판사의 자진 삭제형식으로 사라졌다고 일본의 한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교과서문제는 검정본이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펴면서 검정본의 사전유출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과시키기 위한 검정'에서 내년도에 어디까지 기술한 교과서가 등장할지 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교과서가 얼마나 더 채택율이 높아질지, 2001년보다도 '우경화'가 한층 거세졌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본사회와 일본정부가 현재와 같은 우경화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의 변화도 변수지만,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비판, 이웃나라의 반발과 대응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고 어떤 형태로든 과거청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60년 세월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살아 있는 강제연행 피해자들도 아주 드물다.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에서는 이들이 월 1%씩 자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4년 4월 현재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12명중 1993년부터 금년 4월까지 81명이 사거하여 현재 131명만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이어서 머지않아 사거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다수가 독거노인인데, 그것에 더하여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 연세대 의대 조사에 의하면 2003년 6-8월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심리검사를 한 결과 26명 전원이 과거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겪었고, 이중 8명은 지금도, 그리고 일부는 환자에 준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과거청산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일본국회에서 위안부문제해결촉진법안 BC급전범보상법안 시베리아억류자지원법안 등이 조속히 제정되기 위해서도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화해협상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여름에 출범할 새 국회는 과거청산을 위해 한층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과거가 일본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도록, 우리도 유럽처럼 회개와 화해로 하나의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를 일본사회 일본정부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 日本の過去清算と国家主義

徐仲錫 (ソ・ジュンソク)

日本の過去清算を求める国際連帯会議ソウル大会 共同組織委員長  
日本の教科書を正す運動本部 共同代表  
成均館大教授

### 1.

我々は日本に過去清算を要求するためこの場に集まった。日本の過去清算だけが悔い改めと和解を通じてアジアの平和と連帯をもたらしてくれるからである。これはアジアの現在と未来を創造するためにも緊要である。

我々は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ために2000年代に入ってから2000年12月に日本の東京で「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を開き、2002年5月には北の平壤で「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アジア大討論会」を開いた。特に過去清算に背いた日本教科書問題が再び発生した2001年からは日本と韓国、中国等で様々な形の国際学術会議を持ち、活発に連帯活動を行ってきた。それは東アジアでの歴史認識共有のための韓・中・日の連帯をいつよりも強化させ、「歴史認識と東アジア平和フォーラム」を2002年3月中国の南京で第1回の大会を持ち、2003年2月には東京で第2回の大会を持ち、今年の8月にはソウルで第3回の大会が開かれる予定である。日・中・韓の歴史認識の共有のための歴史教科書副読本編集会議も折々開かれ今は執筆完了段階にきている。

今年の3月には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とともに意義ある集会があった。日本軍性奴隷に対する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賠償を促す「水曜デモ」が韓国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で600回を向かえた。この集会は韓国の馬山、蔚山等の都市と日本、アメリカ、フィリピン台湾、ドイツ、スペイン、ベルギー等でも同時に開催された。「水曜デモ」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1992年、宮沢喜一日本総理の訪韓を前に水曜日の昼の12時に日本大使館の前で日本軍性奴隷強制連行を認め、犠牲者に対する損害賠償を要求することから始まって、600回を迎えたのである。ある日本軍性奴隷被害者のハルモニの「はじめて大使館の前に来た時の黒毛がいつの間にか白髪になった」という言葉から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胸にこびりついた悲しみと怒りが見られた。韓国の諺に10年あれば山河が変わるといふのがあがあるが、12年間もこの集会を報告されながらも、いつもハルモニたちの要求をけとぼしてきた日本政府がどんなに厚顔無恥であり反文明的政府なのかを改めて感じざるを得ない。

日本に過去清算を要求するキャンペーンは世界の世論の広範囲な支持を受け、権威

ある国際機構から積極的同調を受けてきた。部分的であれ日本の司法も真実を認める判決を下し、問題の日本教科書は学校から排斥された。

1993年6月世界人権会議では性奴隷問題などには効果的対応と処罰が必要であるという点を強調し、1994年1月には国際法律家委員会での日本軍性奴隷に関する最終報告書では、日本の行為が国際協約を違反したものと判断されると強調した。1996年3月に開催された第52次国連人権会議に提出されたクマラスワミ国連女性暴力問題特別報告官が作成した報告書には日本に対し日本軍性奴隷についての法的責任の受諾、被害者に対する個別補償実施、特別行政裁判所設置、日本軍性奴隷徴用などに関する法を犯した者に対する処罰を要求し、関連教科課程に歴史的真相を反映することを勧告した。そして国連人権小委員会傘下の「マイノリティに対する差別防止および保護小委員会」の特別報告官マクドガルは1998年8月に発表した「戦時組織的レイプ、性奴隷、奴隷的扱い慣行に関する特別報告書」で日本軍性奴隷は明白な国際法違反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日本政府の被害者に対する賠償責任と慰安所設置責任者起訴義務を確認した。日本の責任を問う決議は1999年8月国連人権小委員会でも、同じ時期のアメリカのカリフォルニア下院で決議されたのである。2000年12月日本東京で開かれた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ではヒロヒト前日本国王がレイプと性奴隷などの人道に反する行為に対する責任において有罪だと判決した。国際労働機構 (ILO) からも数次、日本の責任を強調し、2001年4月国連人権委員会ではクマラスワミ特別報告官の報告書を「大変肯定的」に注目し、「性暴力撤廃に関する決議案」を通過させた。

日本裁判所も部分的ではあるが、真実と正義を擁護した判決を下した。日本製鉄釜石訴訟 (1997年)、日本鋼管訴訟 (1999. 4) 不二越訴訟 (2000. 7)、花岡訴訟 (2000. 11) などでは該当企業と被害者の間に和解が成立した。中国人強制連行と関連したリュレンジン訴訟で東京地裁は戦後救済を怠ったことに対し日本政府に2000万円の支払いの命令を下した。(2001. 7) 2002年3月と2004年3月にも強制連行に関する意義ある判決があった。2002年福岡地裁では強制連行、強制労働を不法行為と認め除斥期間を制限し、三井鉱山が中国人被害者の5名に一人当たり1,100万円を支払うように判決した。2004年新潟地裁は中国人強制労働被害者に対する安全配慮義務違反で「日本政府と企業は原告一人に800万円ずつ全部で8800万円を支給するように」という判決があった。

日本政府と日本社会の極端な自己中心主義をよく見せてくれる一例が韓国人原爆被害者に対する処遇であった。日本人被爆者は1998年まで約2兆5千億円の支援を受けたが、日本人被爆者の10分の一くらいの韓国人被爆者は粘り強い闘争を経て

1990年日本政府から単発性慰労金40億円受ただけであった。しかし2002年12月大阪高裁は郭貴勳氏の訴訟について「被爆者はどこにいても被爆者だという事実を直視せざるを得ない」と判決した。これに対し日本政府は上告を放棄したが、韓国人被爆者が被爆者援護法に根拠する手当を支給されるために最低一回は日本に来るようにし、高齢または病気で日本に行けない被爆者は手当を受けられないようにして、無料健康診断や医療費支給も日本国内に限定するようにした。それだけではなく、北の被爆者たちに対してはどんな補償や援護も考慮していない。57年の歳月が流れ被爆者のほとんどが死亡した2002年になって、かろうじて認められた「被爆者はどこにいても被爆者である事実」が無視されている。

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運動が最も大きな成果をおさめた部分は表面的にみて日本教科書問題だった。2001年中学校歴史教科書に対する日本政府の基本立場を一言で要約すると「落とす検定」から「通す検定」と変わったことだ。日本の近隣諸国侵略と軍国主義ファシズムのアジア侵略を美化し、日本軍性奴隷問題や韓国・東南アジアなどでの住民虐殺、731部隊の細菌戦を記述しなかった教科書、南京大虐殺をあいまいに記述した教科書を通すためだった。日本政府の欺瞞的偽善策を赤裸々に見せている部分である。2002年に通った高等学校用『最新日本史』は一層さらに侵略戦争を美化しただけではなく、特に中国に対する侵略を美化して、日本の憲法改正などを要求した。しかし「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がつくった中学校歴史教科書は日本と韓国の市民団体等の激しい反対運動で採択率が0.039%（521冊）に止まり、「日本会議」で作った『最新日本史』は2002年に1.83%（1,056冊、新版）の採択に過ぎなかった。

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全世界の良心勢力の声は年を重ねるたび高まっていて、誰もが納得する権威ある人権機構や人権団体、国際会議で日本政府と日本社会の責任を明白に指摘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日本政府や日本社会は良心の扉をかたく閉めている。日本軍性奴隷問題と関連して、日本政府の強制連行の事実の認定、公式謝罪、真相究明、慰霊塔と史料館の建立、被害者賠償、歴史教育、責任者処罰などどの問題についても誠意ある態度をみせていない。駐韓日本大使館は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水曜デモ」を600回も目にしても何の応答がない。ただ600回目の水曜デモではじめて韓国挺身隊対策協議会が伝えた声明書などを受け取っただけであった。

日本政府と日本社会が、アメリカが日系に戦時強制収容所被害者補償金として一人に2万ドル等を、カナダがまた同じ補償金として一人当たり2万1千カナダドルを支給し、カナダ、イギリス、オランダ、ニュージーランド政府からも自国民の日本軍捕虜等に対して補償金を支給し、韓国と台湾が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に対し生活費

等を支給したことを知らないわけがない。それにも関わらず、日本は「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でことを済まそうとしている。この国民基金は日本政府の犯罪隠蔽、法的責任回避手段となっている。さらに、被害者と被害者の間に、被害者と市民団体との間に分裂を助長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我々は惨憺たる気持ちで注視している。

日本はドイツが2001年7月からナチの下での民間企業が戦時犯した強制労役について、「記憶、責任、未来」という標語の下、総額100億マルクを約120万名の被害者たちに支給し反人権的行為についての謝罪をことばではなく行動でみせてくれた事実をよく知っているに違いない。私たちはこの場で三井、三菱などの企業が日本政府の具体的指針の下、炭鉱等で「慰安所」を運営した事実などを議論することに興味を持たない。ただ1988年までのドイツの戦後賠償額を国民一人の負担額に換算して比較した場合、日本の65倍を上回っており（朝日新聞、1993.8.18）、1991年湾岸戦争の時、日本は戦争費用でおおよそ130億ドルを無駄口なしにアメリカに出し、1945年から1990年まで日本人戦争犠牲者援護費、戦没者遺族年金などで31兆円を使っている（1991年に出版されたある本では40兆円を超えたと記述されている。石坂浩一等の『日朝条約への市民の提言』。日本が第2次世界大戦以後東南アジアと韓国にあげた賠償額、補償額は6,565億円（日本が喪失した在外資産を合わせたら約1兆円である）しかない点を指摘したい。

なぜ日本政府と日本社会は世界の世論と権威ある人権機構の勧告に対して、心の扉を開こうとしないのか。これの背景には扇情主義マスコミ、扇動政治と結合している日本の右傾化があり、自己中心主義を超えた日本社会の自閉症的な性格であるというのはいき過ぎた主張だろうか。

## 2.

フランスのある教授が20世紀の最後の年に書いた文書では今日全世界に「悔い改めと和解のグローバル化」と言われるような事態が展開されていると言った通り、1980、90年代、そして2000年代に南アフリカやドイツなどのヨーロッパ、アジア、中南米等で悔い改めと和解、過去清算が活発になされたし、なされている。「虐殺と蛮行の20世紀」を「犠牲者の心情」で記憶することで現在と未来を新たに創造するためである。

しかし日本だけは地球から遠く離れた外界の島のように20世紀が終わる頃「忘れられた10年」を補償しようとするように右傾化現象が激しく起こっていて、21世紀を超えると一層激しく押しを利かそうとしている。様式ある日本の多くの知識人たちが一時的現象であるだろうと慰めるが、現在の事態が決して楽観的でないのは明らか

かだ。このような狂風の下では過去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蛮行などに対する悔い改めと反省、謝罪と賠償・補償が説得力を持つのが難しい。

日本は20世紀末から機会があれば国家主義の軍事大国化の道に走ろうとした。世界世論の激しい反対を押し切って、アメリカのブッシュがイラクを侵攻した直後の2003年6月日本は無力攻撃事態対処法案、自衛隊法改正案、安全保障会議設置案など「有事法制」関連の三つの法案を通し、右翼は日本が戦争のできる国になったと興奮した。

日本が軍事大国化の道に進めば進むほど過去を生々しく記憶している近隣の人々は不安と疑いの目で日本を注視せざるを得ない。日本が近隣諸国の軍事力を言い訳に軍国主義の風を起すのはまるで20世紀初めロシアが韓国に侵略することを心配して自分が侵略したのだと強弁したのと同じくらいの強引な論理である。日本は世界第2位の軍備支出国で、自国内に800個の核兵器がつくられる8tの再処理されたプルトニウムを持っており、ヨーロッパの再処理施設にも35tが積まれている。

小泉日本総理は2003年5月参議院有事法制特別委員会で三つの法案が議会を通る時、1954年自衛隊発足以来総理としてははじめて議会で、自衛隊は軍隊であると発言し、有事の際先制攻撃できることをほのめかしたのも危うい発想だが、安部晋三が自民党幹事長に抜擢されたのは右翼に迎合した、政治ショー、扇動政治の標本であると言える。A級戦犯で首相を2回務めた岸信介の外孫であり、安部晋太郎の息子である安部晋三は1997年「日本の将来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い議員の会」をつくり、「慰安婦」問題は存在しないのであり、教科書から削除せよと主張した。彼は日朝修交を推進し「国賊」扱いを受け、後退した日本外務省の田中均の代わりに対朝交渉の責任者を務めたこともある彼は北に対して、鷹派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る。

軍国主義が本格的に登場し、そして韓国と大陸侵略の足場となった日露戦争開戦の100周年を迎えた今年の2月日本列島が怪しげな熱気に包まれた。極右新聞が「日露戦争から100周年、国民の戦争」などの内容で特集を組んだことはさておき、意図的に日露戦争開戦日の2月8日に合わせ、第2次世界大戦以後はじめて海外の戦闘地域に派遣された陸上自衛隊の本隊の一陣90名がイラクのサマワに入ったことは隣の国に対して挑発的だという印象を消すことができない。また多くの日本人は自衛隊のイラク派兵を「栄光の帝国の歴史」が復活したことと考え、若者が「制服(軍人)」に好感をみせたと外信は伝えた。さらに日本の議員43名は日本がロシアに宣戦布告をした2月10日明治神宮を集団参拝した。彼らは「日露戦争を学ぶ会」を発足すると知られている。

私がこの文を書く何日かの前、ある教授が近頃の日本はとても理解しにくいと吐露したのを聞いたことがある。昔の日本についてはなぜその現象が起こったのかが説明

可能だったが、今はそれが不可能であるように感じているのは私一人だけではないだろう。まるで深刻な精神病を病んでいるようだ。

2002年9月17日平壤での日朝正常化会談後、日本で朝鮮学校の女子学生に対するスカート切り裂け事件、暴行暴言が相次いで起こった。2002年11月30日から2003年3月20日まで東京都・埼玉県などの関東地域にある朝鮮学校の学生2,710名を対象に行なったある団体による被害実態調査によれば、彼らのなかの522名が暴行、暴言を受けたと答えた。暴行暴言は女子学生と幼い学生のほうが多く受けている。幼い学生は親から聞いた1923年9月関東大震災の時あった朝鮮人大虐殺を思い出したという。

日朝正常化会談を成功させた主役である外務省の田中均の自宅駐車場で、2003年9月爆発物が発見されたのも驚きであるが、東京都知事石原慎太郎が「爆弾をしかけたのは当たり前なことだ」と公然と発言したのはより大きい衝撃だった。この発言があってから一ヶ月が過ぎた10月石原は「日本人拉致者を救う会」に講師として招かれた彼は韓半島の植民地支配が武力による侵略ではなく、朝鮮人の総意による選択であり、人間的だったという趣旨の主張をした。どうしてこのような人物がほかでもない東京都の知事選挙で圧倒的な差で当選され、また将来の総理として有望だということをどのように説明できるだろうか。

日本人拉致問題は日朝正常化会談で北が13名の拉致事実を認め、謝罪し再発防止の意を表明したことから解決の糸口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日本は拉致生存者5名が一時帰国の条件で日本に戻った後、納得しにくい態度をみせている。確かに彼ら5名を平壤へ帰すという約束であったが、その約束を破って彼ら5名を帰さないことを「決定」し、彼らの家族を日本に帰さなければ国交交渉は不可能だという最終通告をしたのは横暴に違いない。貿易と送金を中断させるという圧力も理解しにくい。

今年の3月卒業式で東京都教育委員会が人を派遣して日の丸君が代の提唱を監視したことも、東京都教育委員会が77校の176名の教師に対し、君が代提唱の時起立しなかったことに警告措置したことや新年の再契約を取り消したことは日帝末を思わせ、複雑な気分である。最近イラクの日本人拉致事件に対する日本政府、日本社会の「いじめ」も理解しにくい。

最近日本で発生した事件のなかで、怒りと疑いを特に強めたのは小泉日本総理の靖国神社参拝とそれについての強弁である。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に靖国神社には東條元総理などA級戦犯14名が合祀されていて(1978.10)、彼と共に戦争行為を命令し、実行したことで処罰されたB、C級戦犯と日中戦争の際戦死した大将・中将など多数の日本軍指揮官がいる。このため靖国神社は日本軍国主義侵略戦争の象徴



となっている。この神社には台湾出身2万8千余名、朝鮮出身者2万1千余名が合祀されているが、靖国神社は台湾と韓国の合祀撤回要求を拒んだ。

小泉総理は2001年4月就任以来毎年一回靖国神社を参拝したが、今年には巧妙に1月1日奇襲参拝した。そして2月10日衆議院でA級戦犯合祀について抵抗感がないと答弁した。3月28日には「なぜ外国人が反対するのかおかしくて仕方ない」と言い、一国の「英雄は大概他国では悪党」だと打ち明けた。彼は福岡地裁で4月7日「総理の靖国参拝は憲法の20条3項（政教分離）に違反する」と判示したことについて、判決直後「個人的信条に基づいた参拝であるため私的なこと」だと言い、記者会見の時、おおよそ16回も「なぜ違憲なのか分からない」と首をかしげた。問題の安部晋三自民党幹事長も総理と同じく「総理の参拝は憲法違反でない範囲内だと思う」と表明した。

違憲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という判決について、小泉や安部の抵抗は彼らが三権分立の原則や法を尊重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ざるを得ない。福岡裁判所の亀川清長裁判長が適視したとおりの憲法上の問題があることを小泉が知らないわけがない。1991年1月仙台高裁でも「公式参拝は憲法第20条3項が禁止する宗教的活動に該当する違法行為であ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決し、この判決は上告審で確定された。1992年2月福岡高裁でも「公式参拝を続けたら違憲」だと判決し、これもまた確定された。小泉総理が私的参拝であると言い張るのは裁判所の判決を待たなくても、手のひらで空を覆おうとしている行為であり、日本国民をもてあそんでいる詭弁に過ぎない。総理が参拝したのは燕尾服をまとった今年のように着物姿の総理が参拝したのだ。

小泉総理が東條などの戦犯を英雄であるようにたとえたのは精神状態がおかしいのではないかと疑わざるを得ない。果たして文明国に住む人なのかと嘆かざるを得ないのだ。東條などの戦犯たちは人類の敵であるヒトラと同じ類である軍国主義のファシストであり、非人間的反文明的戦争を起こし数千万を死に至らせ、数億の住民に多大な苦痛を与え、南京虐殺等の数多くの虐殺、細菌戦、化学戦などの責任者である。このような人たちが日本人ではなく他国人で日本に同じ被害を与えた場合でも日本人は一国の英雄は他の国からは悪党だとたやすく言えたのだろうか。小泉等は日露戦争から1945年敗戦にいたるまで日帝が犯した罪悪が悪かったのだと少しも思っていないのか。

外国人がなぜ神社参拝に反対するのかおかしくて仕方ないという発言にはあいた口もふさがらない。どうしてあのような発言ができたのが誠におかしくて仕方ない。戦犯、侵略戦争遂行者たちが合祀されている神社を参拝することは容認できない。さ

らに日帝の軍国主義国家主義がどんな結果をもたらしたのか、昨日のように生々しく記憶している我々としては軍国主義・国家主義・軍事大国化に走らせるような総理の神社参拝を決して傍観できない。それ以上無責任なことがないからだ。それは天皇制ファシズムの下での皇道教育がどんな結果をもたらしたのかをよく知っている我々としては、同じ頁でドイツの侵攻は侵攻と事実通りに書き、日本の侵略は「進出」（2回）「進駐」（『最新日本史』248頁）などに表記したことが語っているように、あつかましく侵略を侵略でないとし、侵略戦争を美化して大日本主義・軍国主義を鼓吹した教科書を使わせた現日本政府の教育政策を座視するに忍びない理由と同じである。

### 3.

日本の過去清算が果たされるためには韓日協定の改正が要求される。韓日協定の改正の必要性は学界などでこの間うまずたゆまずに主張されてきた。2000年11月には与・野党の議員33名が「日朝修交協定と関連した日帝植民残滓清算に関する決議案」を国会に提出した。彼ら議員たちはこの決議案で日韓基本条約が日朝修交協定の準拠として提示されても、日朝修交の障害になってはならないことも強調し、日朝修交では日本の公式謝罪と賠償問題をはっきりさせることを促した。彼らは乙巳条約、丁未7条約、日韓併合条約が武力と暴力によって強圧的に結ばれたため、無効であることを日朝修交では宣言することを強調した。2002年9月日朝首脳会談を前にして発表された市民・社会団体、国会議員たちの共同声明で日帝の過去清算を強く促し、大韓民国は誤った日韓協定を廃止し、直ちに再締結協定に出るよう要求した。日本は西洋各国と結んだ不平等条約改正運動を起こし1890年代末までイギリス、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ロシア、オーストリアなどと新たな条約を結んだ。また自民党政府は1951年日米新安保条約を通過させたことがある。

日本の過去清算と関連して国際的にも重要なこととして提議されたのが日本軍性奴隷問題である。この問題は1970年代以後提議された。よって韓日会談で全然議論されてなかった。このように日本軍性奴隷問題を知らない状態で韓日協定が締結され、条約改正で重視される「予想しなかった（not foreseen）事情の根本的変更」事由が発生した。

韓日協定で乙巳条約の無効問題、「韓半島での唯一合法政府」等の解釈をめぐる韓国政府と日本政府が相反する主張をしているが、この点を新しい条約では明確にすべきである。このような点と関連して韓日会談は密室での「取引」だったとして、当時大きな反対運動にぶつかったことを想起する必要がある。また最近新しい資料が

多く発掘され、新しい研究がなされていること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謝罪も新しい協定には明示すべきである。

強制連行被害者たちに大きな被害を与えているのは韓日請求権協定である。韓国政府が請求権資金をごく一部の被害者たちに小額を支給したことも問題であるが、この協定が強制連行被害者たちの賠償、補償に最も大きな障害物となっているからだ。従来の賠償、補償裁判では時効、個人の国際法上の地位、国家無責任論、別個会社論等から棄却されたが、アメリカ、韓国などでの訴訟に対する防御論理が一つの背景となって、最近では韓日請求権協定による消滅論が日本政府によって本格的に登場してこの協定の改正の必要性が切実である。

韓日協定は東アジアの政治的状況の変化のためにも要求されている。すでに知っている通り1965年韓日協定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米日新安保条約の延長戦で締結されたもので、韓・米・日の3脚安保体制の強化とかみ合っている。三つの国の政府は北および中国、ソ連に対する敵対政策の一環としてこの条約を結んだ。しかし今南と北、米・日と中・ロ関係は全面的に変わった。1991年南北基本合意書が採択され、2000年には歴史的6・15南北共同宣言が発表された。2002年9・17日朝共同宣言も東アジアの変化を鮮明に見せている。

韓日協定改正が難しいなら、韓日両国の政府が「共同宣言」または「協同解釈」の方法での問題解決も可能だ。また日朝条約で過去清算と関連した条項を明確にし、これを韓日協定に適用する方法も検討できるだろう。

我々は日本の過去清算と関連して、これと直結している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のため、日朝修交が速やかに解決されることを促したい。日朝修交は東アジアの冷戦の最後の砦を壊すことであり、悔い改めと和解のなか平和と協力の現在と未来を創造する道である。日本が9・17宣言で「過去植民地支配で朝鮮人に多大な損害と苦痛を与えた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謝罪の意を表明」したことに従い賠償・補償をすることは過去清算問題に対する画期的転換を意味することで、新しい日本と肩を並べ、アジアは新しい企画ができるだろう。

我々は日本が危険な状態であるという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総理がこれからも靖国神社に参拝すると公言するなど、上でみた通りむしろ日本は過去清算に逆行することを見せている。また自民党所属の衆・参議員80余名が加入していて、安部晋三が主動した「日本の将来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い議員の会」は今年2月会議で、ある試験問題に出た「強制連行」という表現に問題があることに意見を共にし、歴史教科書から「強制連行」関連記述内容が削除されるよう呼びかけた。去る4月には小学校用の社会教科書に強制連行被害者に関する具体的数値が、出版社が自ら進んで削除する

形で消えた日本のある新聞は報道した。日本政府は教科書問題は検定本が事前に流出されたため発生したと本末の転倒した論理をつかい検定本の事前流出を防ぐために全力を注いでいる。2001年より「右傾化」が一層強まったため、「通すための検定」から来年にはどこまで記述した教科書が登場するのか、また「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等の教科書の採択率がどれほど高くなるのかなどに関する心配は当たり前である。

しかし日本社会と日本政府が、現在のような右傾化が持続し続けることになってはならないことを知らないわけではないだろう。過去と同じくアメリカの変化も変数であるが、右傾化に対する国際社会の連帯と批判、近隣諸国の反発と対応にずっと背けることは不可能であり、どんな形であっても過去清算に対する全的变化の姿勢を見せざるを得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だろう。

60年の歳月で今は生きている強制連行被害者はとても少ない。ドイツの「記憶、責任、未来」財団では彼らが月1%ずつ自然死亡すると推定した。2004年4月現在韓国政府に「慰安婦」被害者と登録された212名の中1993年から今年の4月まで81名が亡くなり、現在131名だけが生存している。彼らはだいたい80才以上で亡くなる可能性が高い。日本軍性奴隷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大多数一人暮らしの老人であり、それに加え相当の人が外傷後ストレス障害を病んでいる。延世大の医大の調査で2003年6-8月被害者26名を相手に心理検査をした結果26名全員に過去に外傷後ストレス障害で苦痛を経験しており、彼らの中の8名は今もそうであり、そして一部は患者に準じる病を病んでいると判明された。

このように日本の過去清算は大急ぎの課題である。我々は日本の過去清算を要求する国際的連帯強化のため、一層努力すると誓うと同時に日本国会で慰安婦問題解決促進法案、BC級戦犯補償法案、シベリア抑留者支援法案等が速やかに制定されるためにも国際的連帯を強化し、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に和解協商支援にも積極的に出るつもりである。韓国では今年「日帝下強制動員真相究明特別法」「日帝強占下親日反民族行為真相究明に関する特別法」が国会を通った。今年の夏にはじまる新しい国会は過去清算のため一層積極的に活動するだろう。過去が日本をこれ以上付きまとわないように、私たちがヨーロッパのように悔い改めと和解で一つのアジアになるように努力してほしいと日本政府に対し切実に望むのである。

( 번역 김경운 )

## 日本的过去清算与国家主义

徐仲錫(要求日本清算过去的国际连带协议会汉城大会共同组织委员长·  
纠正日本教科书运动本部共同代表·成均馆大学教授)

### 1.

今天我们为了要求日本清算过去共聚在这里。因为只有日本清算过去才能通过悔改和和解实现亚洲的和平和连带。这对于创造亚洲的现在和未来是非常紧迫和重要的。

我们为了要求日本清算过去于2000年12月在日本东京开设了“日本军性奴隶战犯女性国际法庭”，于2002年5月在平壤召开了“要求日本清算过去的亚洲大讨论会”。特别是从日本教科书问题产生的2001年开始，日本，韩国，中国等地举行过各种形式的国际学术会议，开展了多样的连带活动。为了加强韩·中·日的连带2002年3月在中国南京召开了第1届“历史认识和东亚和平研讨会”，2003年2月在东京召开了第2届大会，今年8月将在汉城召开第3届大会。为实现日·中·韩三国历史认识的共识历史教科书辅助教材编辑会议也召开数次，现处于执笔收尾阶段。

今年3月我们有过一次非常有意义的要求日本清算过去的集会。要求日本政府对日本军性奴隶公开道歉和赔偿的“周3示威”在韩国的汉城日本大使馆前举行了第600次示威。本集会在韩国的马山，蔚山等城市及日本美国菲律宾台湾德国西班牙比利时等地也同时举行。“周3示威”是韩国精神对问题对策协议会在1992年日本总理宫泽喜一访韩之前于12点在日本大使馆前要求日本承认强制逮走日本军性奴隶及对牺牲者进行赔偿等而开始的，到现在已经有600次了。一位日本军性奴隶的受害者老大娘说“第一次站在大使馆前面是还是黑头发，不知不觉头发都变白了”，从老大娘的这句话中我们可以体会到受害者内心深处的伤痛和愤怒。韩国有这样一句俗语，说是10年的话江山都变了，我们可以感受到12年中一直面对集会而无动于衷的日本政府是一个多么厚颜无耻的半文明政府。

要求日本清算过去的活动得到了世界舆论的广泛支持和权威性的国际机构的积极的赞同。日本司法部也下了部分的承认事实的判决，有问题的教科书被从学校排斥出去。

1993年6月世界人权会议中强调性奴隶问题等需要有效的对应和处罚，1994年1月国际法律委员会在有关日本军性奴隶的最终报告书中强调指出日本的行为是违反国际条约的行为。1996年3月召开的第52届联合国人权委员会中提交的Coomaraswamy联合国女性暴力问题特别报告官做的报告中对日本军性奴隶的法律上的责任承诺，实施对受害者的个别赔偿，设立特别行政审判所，对日本军性奴隶征集等犯法者进行处罚等进行了要求，劝告其在有关教科书中反映历史事实。并且联合国所属的“防止对少数者的差别及保护所委员会”特别报告官在1998年8月发表的「关于战时组织性强奸，性奴隶，奴隶式的对待惯行的报告书」中明确指出日本军性奴隶式违法国际法的行为，日本政府有义务对受害者进行赔偿和对设立慰安所的责任者进

行起诉。追究日本的责任的决议在1999年8月联合国人权委员会和同时期的美国加利福尼亚下院中被通过。2000年12月在日本东京召开的日本军性奴隶战犯女性国际法庭中前日本天皇裕仁对强奸和性奴隶等违反人道的行为做出了有罪的判决。国际劳动机构也多次强调日本的责任，2001年4月联合国人权委员会对Coomaraswamy的报告作出“非常肯定”的反应，通过了“有关取消性暴力的决议案”。

日本审判所也下了部分的拥护事实和正义的判决。日本制铁诉讼(1997.9)，日本江关诉讼(1999.4)，不二越诉讼(2000.7)，花冈诉讼(2000.11)等都达成了有关企业和受害者间的和解。与强制逮走中国人有关的诉讼中日本地方审判所下达了要求日本政府支付2000万日元的判决(2001.7)。2002年3月和2004年3月也下达了对强制逮走的判决。2002年福冈地方审判所承认强制逮走，强制劳动是不法行为，限定制裁时间，判决三井矿产给中国人受害者15名每人支付1,100万日元。2004年新泻地方审判所对中国人强制劳动受害者一事因违反安全关心义务下达了“日本政府和企业合作支付给原告每人800万日元共计8800万日元”的判决。

体现日本政府和日本社会的极端的自我中心主义的极好的例子要数对韩国人原子弹爆炸受害者的待遇了。日本人受害者到1998年为止得到了约2兆5千亿日元的支援，而只有日本人受害者10分之1的韩国人受害者经过不懈的斗争努力才于1990年从日本政府收到40亿日元的慰劳金。但是2002年12月在大阪高等审判所对郭贵勋的诉讼一案下了“无论受害者在哪儿，不能不承认这一事实”的判决。对此日本政府虽然放弃了上诉，但是依据原子弹爆炸受害者援护法，韩国人受害者想要得到赔偿的话，必须至少得去1次日本，因此高龄和以及因病无法去日本的受害者得不到赔偿，免费健康诊断及医疗费支付也都限定在日本国内。在经过了57年受害者们几乎都死亡的情况下才在2002年非常艰辛的承认“受害者们无论在哪里都是受害者的事实”。

要求日本清算过去的运动最有成果部门从表面上看要数日本教科书问题了。2001年对中学历史教科书的日本政府的基本立场用一句话来说就是从“使其落选的审定”转变成“使其通过的审定”。将一本对日本侵略周边国家，军国主义法西斯的亚洲侵略进行美化，对日本军性奴隶问题，韩国，东南亚等地的居民屠杀，731部队的细菌战等不予陈述，对南京大屠杀的陈述暧昧模糊的教科书通过了审定。将日本政府的欺骗伪善策略赤裸裸的展现出来。2002年通过的高中用『最新日本史』对侵略战争进行了更一步的美化，特别对对中国的侵略进行了美化，要求日本修改宪法。但是‘编辑新历史教科书的聚会’中编辑的中学历史教科书由于日本和韩国市民团体等的激烈的反对运动采用率只有0.039%(521本)，‘日本会议’中编辑的『最新日本史』2002年也只不过被采用了1.83%(1056本，新版)。

要求日本清算过去的全世界的良心势力的呼声一年比一年高。无论是谁都可以看得出来尽管在权威性的人权机构，人权团体，国际会议上对日本政府和日本社会的责任明确作出指责，日本政府和日本社会还是紧闭着良心的大门。与日本军性奴隶问题有关的日本政府的强制逮走承认，公开道歉，披露真相，建立慰灵塔和史料馆，受害者赔偿，历史教育，责任者处罚等问题日本政府为表现出一点有诚意的态度。驻韩日

本大使馆尽管目睹了 600 次受害老大娘们的‘周 3 示威’，还是无动于衷。只是接受了第一次示威时韩国精神对策协议会转达的声明书。

美国对日本战时强制收容所受害者支付了每人 2 万美元的赔偿金，加拿大也是支付了每人 2 万 1 千元的加拿大元，英国，荷兰，新西兰的政府也都对本国的日本军战俘支付了赔偿金，韩国和台湾对日本军性奴隶的受害者们支付生活费，这些日本政府和日本社会不可能不知道。即使是这样，日本仍然想填补‘为了女性的亚洲和平国民基金’。国民基金成了日本政府的犯罪掩盖，回避法律制裁的手段，不仅如此，还造成了受害者和受害者之间，受害者和市民团体间的分裂。

日本应该也知道德国从 2001 年 7 月对纳粹民间企业在战争中犯下的强制奴役问题在‘记忆，责任，未来’的标语下，对约 120 万名的受害者支付了共计 100 亿马克的赔偿金，对反人权的行径以行动进行了道歉。我们在此无意对日本的福冈等地的企业在日本政府的具体的指挥下在碳矿等地设立‘慰安所’的事实进行论证。我们只是想陈述以下事实。到 1988 年为止德国的战后赔偿额按国民 1 人负担额来换算比较的话相当于日本的 65 倍，1991 年海湾战争时日本二话没说给了美国 130 亿美元，1945 年到 1990 年日本人战争牺牲者援护费，战死者家属抚恤金等花掉了 31 兆日元，（1991 年出版的一书中记述为超过了 40 亿。石坂浩一等的『日朝条约的市民发言』），日本在 2 战以后支付给东南亚和韩国的赔偿额只不过 6,565 亿日元（加上日本丧失的在外资产约 1 兆日元）。

为什么日本政府和日本社会面对世界的舆论，面对权威性的人权机构的劝告仍然紧闭良心的大门，对此置之不理呢。究其原因，是与日本的善政主义新闻媒体和煽动政治相结合的日本的右倾化以及摆脱了自我中心主义的日本社会的自我封闭症式的社会特点有关的，不知这一主张是否有点过分。

## 2.

法国的一位教授在 20 世纪最后一年写过的文章中说过今天的世界是‘悔改与和解的世界化’全面展开的世界。1980 年代，90 年代，以及 2000 年代在南非，德国等欧洲，亚洲，中南美等地展开了多种形式的悔改和和解，清算过去的活动。这都是为了将对‘屠杀与暴行的 20 世纪’的记忆转变成对‘牺牲者的心情’的记忆，以创造新的现在和未来。

但是好像只有日本是距离地球遥远的外星上的岛一样，在 20 世纪就要过去的时候日本出现了严重的右倾化现象，并且在 21 世纪表现得更加顽强。部分日本学者们认为这只是一时的现象，但现在看来分明是不容乐观的。在这样的情况下，对过去侵略战争和殖民地支配，暴行等的悔改和和解，道歉和赔偿显然是很难实现的。

日本从 20 世纪末开始只要有机会就想踏入国家主义军事大国化的道路。置世界舆论的反对于不顾，在美国侵略伊拉克之后的 2003 年 6 月日本接着通过了武力攻击事态对付法案，自卫队法改正案，安全保障会议设置案等‘类似法案’3 个，右翼们因日本成了能够作战的国家而兴奋不已。

随着日本在军事大国化的路上越走越远，周边国家的居民们也以越来越不安和疑惑的视线注视着日本。日本以周边国家的军事力量为理由鼓吹军国主义之风，这就象 20 世纪初俄罗斯要占据韩国强加争辩说自己被侵略一样是牵强的论理。日本是世界第 2 位的军费支出国，本国内有着可以制造 800 个核武器的 8T 的被再处理的钚，在欧洲的再处理设施里也有 35T。

日本小泉首相在 2003 年 5 月的参议院有事法制特别委员会中对 3 个法案进行通过时，从 1954 年自卫队成立以来作为内阁总理第一次在议会上发言暗示说自卫队是军队，有事时可以进行先发攻击，这是非常危险的想法，安倍晋三被提升为自民党干事长也是迎合右翼的作秀煽动政治而已。作为 A 级战犯曾 2 次得奖的岸信介的外孙暨安倍晋太郎的儿子安倍晋三 1997 年创立了‘为日本的明天和历史教育着想的年轻议员聚会’，主张不存在‘慰安妇’问题，要将其从教科书中删掉。他极力促进北·日建交，力图达成‘国家间’交涉，代替了前外务省田中均的角色，成了对北强硬派。

在军国主义正式登场以及韩国和大陆侵略的跳板的日俄战争开战 100 周年的今年 2 月，日本列岛笼罩着一派奇怪的气氛。极端右派报纸虽然以俄日战争 100 周年，国民战争等为标题作特别报道，但还是不能掩盖掉日本有意在俄日战争开战的 2 月 8 日那天在 2 战以后第一次向海外的战斗地区派遣了陆上自卫队本队 90 名到伊拉克的这个事实，在周边国家对此突发事实表示吃惊的同时，却有很多日本人认为自卫队的伊拉克派兵是‘荣耀的帝国历史’的复活，年轻人们表现出对军人人们的好感。日本有 34 名议员在日本正式向俄宣战的 2 月 10 日集体参拜了明治神宫。他们因成立‘学习日俄战争的聚会’而被世人所知。

我在写这篇文章的前几天曾经听一位教授说真是难以理解现在的日本，以前的日本为什么会那些情况还可以解释说明，现在这变得越来越不可能，日本就象得了严重的精神混乱一样。

2002 年 9 月 17 日在平壤北·日高级领导人会晤之后，日本朝鲜学校的一个女学生遭到了被刀子割破裙子的暴行及暴言。根据某团体从 2002 年 11 月 30 日到 2003 年 3 月 20 日在东京道等地区实施的以 2710 名朝鲜学生为对象的事实调查，学生中有 522 名回答曾经遭过暴行或暴言。这其中女学生和年级小的学生比率更大。遭到的暴行和暴言使学生们想起了曾经听父母们讲过的 1923 年 9 月关东大地震时的朝鲜人大屠杀情形。

促使北·日高级领导人会谈成功举行的主要人物暨日本外务省的田中均于 2003 年 9 月在自家的停车场里发现炸弹一事已经非常令人吃惊了，然而东京道知事石原慎太郎的“装炸弹是很正常的”的理所当然的发言更是让人受打击不小。这发言过后的 10 月，石原慎太郎受‘救助日本人在北者的聚会’的邀请作为讲师提出了韩半岛殖民地支配不是武力侵犯，是朝鲜人的一致的意愿的选择，是有人道的主张。真不知道这样的人物在东京道知事选举中是怎样以压倒多数的票被当选并且据说以后有希望当选为首相的。

关于日本人在北者问题在北·日高级领导人会谈中北韩承认挟持 13 名日本人，并道歉表示要防止此类事情的再次发生。但是日本以 5 名幸存者暂时回国为条件让他们回到日本后，表现出了让人难以理解的态度。当时约好再把 5 名幸存者送回平壤，但

违了约没有把他们送回去，甚至最后下了通牒，声称不把他们的家属送回来的话要断交。甚至以中断贸易和汇款来威胁。

今年3月毕业典礼上东京道教育委员会向各个学校派遣奖学官，监视升国旗和唱国歌。东京道教育委员会对77所学校，176名教师因唱国歌时没有起立处以警告处分或取消新学年续约，这真是让人感到有一种错综复杂的感觉。最近对伊拉克绑架日本人事件日本政府和日本社会的反应也是让人难以理解。

最近日本社会发生的事件中特别让人愤怒和充满疑惑的要数小泉首相的靖国神社参拜和对此的狡辩了。众所周知靖国神社里合葬着前首相东条英机等14名A级战犯，同时还有下达战争命令或执行战争命令的B、C级战犯以及中日战争中战死的大尉，中尉等多数日本军指挥官。因此靖国神社被看作是日本军国主义侵略战争的象征。神社里合葬着台湾人2万8千名，朝鲜人2万1千名，靖国神社拒绝了台湾和韩国的撤销合葬要求。

小泉首相从2001年4月就任以后，每年一次去靖国神社参拜，今年更是在1月1号那天突然去参拜，而且在2月10日众议院中说对A级战犯的合葬没有感到任何抗拒感。3月28日又说‘不能忍受外国人为什么这么反对’，一个国家的‘英雄大部分在别的国家是恶党’。福冈地方审判所于4月7日做出了“总理的靖国神社参拜违反了宪法20条3项（政教分离）”的判决，在这之后，小泉首相说“这是以个人信念为基础的参拜，是私事”，在记者会见中有16次重复“不知道怎么违反了宪法”。安倍晋三自民党干事长也对首相说“首相的参拜没有违反宪法”。

对不能否认的违反宪法可能性的判决，小泉和安倍的抵抗让人怀疑他们是否是三权分立是否尊重法律。如福冈审判所的龟川清长审判长所指出的小泉不可能不知道宪法上的问题。1991年1月仙台高等审判所也做出了“公开参拜是宪法第20条3项禁止的宗教活动，是违法行为，不得不说”的判决，这个判决在上诉审判中得以确定。1992年2月福冈高等审判所做出了“继续参拜是违反宪法的行为”的判决。小泉对参拜的狡辩是愚弄日本国民的一种狡辩。

小泉对东条等战犯看作是英雄的这种让人啼笑皆非的想法让人怀疑是不是他的精神上有什么异常，或者让人怀疑他到底是不是生活在文明国度的人。东条等战犯就是像希特勒这样的法西斯分子一样，发起非人道的反文明战争，让数千万人死于非命，给数亿的居民带来难以描述的痛苦，南京大屠杀等无数的屠杀，细菌战化学战等的责任者们。如果这些人不是日本人，是别的国家的人，而日本人是受害者的情况下，日本人还能那样泰然自若地说一个国家的英雄是别的国家的恶党吗。小泉等人是不是对从俄日战争以后到1945年战败为止日帝所犯下的罪行一点也不觉得是不好的呢。

小泉的对外国人为什么反对神社参拜而不能理解的发言真是让人不能不愕然失色，真不明白怎么能有这样的发言。参拜埋葬战犯，侵略战争发动者们的神社的行为是不能容忍的行为。更何况我们至今还记得清清楚楚日帝的军国主义国家主义带来了什么样的结果，对于又往军国主义国家主义路上跑的总理的神社参拜我们绝对不能袖手旁观。因为再也没有像这样的不负责任的行为了。我们对天皇法西斯的黄道教育带来的后果非常清楚，日本在同一页中对德国的进攻按事实描述为进攻，而对日本的侵

略却以‘进出’，‘进驻’等来描述（『最新日本史』248页），厚颜无耻的把侵略不称作是侵略，美化侵略战争，鼓吹大日本军国主义，对采用这样教科书的现日本政府的教育政策我们绝对不能坐以待视。

### 3.

为了完成对日本过去的清算，需要对韩日协定进行修改。这期间学界一直都在主张修改韩日协定是非常必要的。2000年11月，执政党和在野党议员共33人向国会提交了与北日建交协商相关，清算日本殖民残留问题的决议案。这些议员尽管提议以韩日基本条约为北日建交协商的框架依据，但还是强调不要影响北日建交，促使在北日建交过程中日本能进行正式道歉及解决赔偿问题。由于乙巳条约，丁未条约，韩日合并条约都是在武力和暴力的强压下签订的，所以这些议员强调在北日建交时应宣布这些条约的无效性。2002年9月北日首脑会议之前，在发表的各种市民，社会团体，国会议员们的共同声明中，一直强烈要求清算日本历史，要求政府废除不平等的韩日协定，立即进行重新缔结的协商。日本掀起了修改与西方诸国签订的不平等条约运动，到1890年代末为止，与英国，美国，德国，法国，俄罗斯，澳大利亚全部新签订了新的条约。另外，自民党政府迫于国民和在野党的反对，对1951年签订的美日安保条约修改问题作了努力，在1960年5月是美日新安保条约在国会中得到了通过。

与日本的过去清算相关，国际上提及的一个非常重要的话题就是日本军性奴隶问题。此问题从1970年代开始被提及。但在韩日会谈中完全没有被提及。因此在不晓得日军性奴隶问题的前提下签订了韩日条约，在条约修改中非常关键的“没有预想到的情况的根本性变更（not foreseen）”的事便由此产生。

在韩日条约中，围绕乙巳条约等的无效性问题以及‘韩半岛的唯一合法政府’等的解释，韩日两政府存在着完全相反的主张，这一点在新条约中也必须予以明确。与此相关，韩日会谈据说是密室中‘讨价还价’，当时遭到了强烈的反对，这一点也有必要陈述一下。最近又发掘出很多新资料，还会有新的研究成果出现，日本的道歉也应在新协定中明示出来。

对强制逮走的受害者们造成更大伤害的是韩日请求权协定。韩国政府只把少数的请求权资金支付给极少数的受害者这种做法虽然也是问题，但这都是因为这协定成了强制逮走受害者们的赔偿，补偿的最大的障碍才这样的。以前的赔偿，补偿审判中通过时效，个人的国际法上的地位，国家无责任论等被驳回，对美国韩国等地的诉讼的防御逻辑是背景之一。最近由于韩日请求权协定而产生的消灭论在日本政府中新登场，协定的修改问题的非常迫切。

韩日协定的修改也是东亚政治形势变化的要求。众所周知，1965年韩日协定是在旧金山强化条约，美日新安保条约的延长线上签订的，和韩，美，日3国的安保体制的强化是相辅相成的。三国政府是以对北韩，中国，苏联的敌对政策为组成部分而签订的条约。但是现在南和北，美和日，中和俄的关系已经全面改变了。1991年签订了南北基本协议书，2000年发表了具有历史意义的6，15南北共同宣言，2002年9，17北日共同宣言给东亚带来了明显的变化。

韩日协定的修改如果不那么容易的话，韩日两国政府可以通过‘共同宣言’或‘联合解释’的方法来解决。同时在北日条约中明确标明与历史清算有关的条款，并把其应用于韩日协定中，这也是一种解决方法。

为了解决日本的历史清算问题以及与此直接相连的东亚的和解和平问题，我们希望北日尽快建交。北日建交是打破东亚冷战最后壁垒，在悔改和和解中创造和平合作的现在和未来的一条出路。按照日本在 9, 17 宣言中所说的“由于殖民地统治，朝鲜人受到了很大的损害和痛苦，对此历史事实接受并对此进行反省和道歉”，赔偿，补偿意味着对历史清算问题的单一性的转换，亚洲将与崭新的日本并肩共谋发展的新计划。

我们十分清楚日本现在处于很危险的状态中。总理将继续参拜靖国神社的发言时与日本的过去清算逆向而行的。另外自民党所属的众，参议院议员 80 名加入的由安倍晋三组织的‘位日本的明天和历史教育而着想的年轻议员的聚会’今年 2 月的会议中指出历史教科书中‘强制速走’这一描述欠妥当，统一了意见，主张将与‘强制速走’有关的叙述内容从教科书中删掉。去年 4 月日本的某报纸曾报道过小学用社会教科书中有关强制速走受害者的具体数值被出版社删掉一事。日本政府声称教科书问题是由于审定版本事先泄漏才发生的。政府正尽全力防止审定版本的事先泄漏。明年不知又会出现什么样的教科书。‘编辑新历史教科书的聚会’等的教科书采用率会不会上升，与 2001 年相比右倾化更加严重了，所以我们不能不表示担忧。

但是日本社会和日本政府不可能不知道右倾化正在持续的这个现实。他们也肯定清楚不可能无视国际社会对右倾化的连带的批判和周边国家的反驳和对应。不管以什么形式，对历史清算不表现出完全不同的姿态来是不行的。

60 年的岁月一挥而过，现在还活在世上的强制速走者们也所剩无几了。据德国的‘记忆，责任，未来’财团的推断他们正以每月 1% 的比例在自然死亡。2004 年 4 月在韩国政府登记的‘慰安妇’受害者 212 名中，从 1993 年到今年 4 月已有 81 人去世，现在只有 131 人还活在世上。而且这些生存者也以年过 80 岁，很可能在不久的将来也会死去。日军性奴隶受害者们大多数是单身老人，而且相当数患有因压力而产生的精神障碍。根据延世大学医药大学的调查，2003 年 6-8 月对 26 名受害者进行心理检查的结果，全部都因过去的伤害遗留下有精神上的压力障碍，其中 8 名现在也是如此，其中一部分人被认为是病患者。

正因为如此，日本的过去清算问题是一个非常紧迫的课题。为了强化要求清算日本过去的国际连带我们需要更加努力。同时为了尽快制定出慰安妇问题解决促进法案，BC 级战犯补偿法案，西伯利亚扣押者支援法等应强化国际连带，积极和日本政府企业进行和解协商。韩国今年在国会通过了‘日帝下强制动员真相究明特别法’，‘日帝强占下亲日反民族行为真相究明特别法’，今年夏天出台的新国会将对清算日本过去问题将会更积极的活动。为了不再让过去追逐着日本，我们也象欧洲那样，用悔改和和解去实现亚洲的一体化，为此我们强烈呼吁日本社会日本政府为此而做出努力。

(번역 가금영)

## Japan's Nationalism and Atonement

Joong-seok Seo

(The Chairperson of the Seou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Joint Council demanding Japan's atonement,  
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of the campaign for the correction of Japanese textbooks and  
Professor at SongKyunKwan University.)

1.  
We have gathered here to demand Japan's atonement. This is because it is only through Japan's atonement and the ensuing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that we can attain peace and solidarity in Asia. This is also vital for the creation of Asia's present and future. In order to demand Japan's atonement, upon entering the year 2000, we establish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r Crimes and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and held an Asian Forum in Pyeong-Yang, North Korea in May 2002. Especially since the emergence of the Japanese textbook problem in 2001, various academic conferences were held in places such as Japan, Korea and China and lively joint campaigns undertaken. These strengthened ties between Japan, Korea and China more than ever in the interests of promoting awareness and joint ownership of Asia's history. The first East Asia Peace Forum for awareness and joint ownership of history ensued in March 2002 in Nanking in China, followed by a second forum held in Tokyo in February 2003, while the third forum is planned for August of this year in Seoul. The Auxiliary History Textbook Editing Conference for the purpose of Japan, Korea and China's awareness and joint ownership of history was also held as required and thus the writing of the texts nears completion.

In March of this year, a most meaningful demonstration demanding Japan's atonement was held. This was the 600<sup>th</sup> "Wednesday Demonstration" held in front of Seoul's Japanese Embassy, pressing for an official apology and victims'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se meetings were held in places such as Masan and Ulsan in Korea, and also in countries such as Japan, USA, Philippines, Taiwan, Germany, Spain and Belgium. The "Wednesday Demonstration" began at 12 noon on Wednesday in the lead up to Japanese Prime Minister, Miyazawa Kiishi's visit to Korea in 1992, when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demanded compensation for and acknowledgement of those forcibly drafted as military sex slaves by Japan. This is how it began, and in the blink of an eye, the 600<sup>th</sup> demonstration has crept up upon us. One grandmother's words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sadness and anger pent up in the hearts of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s sex slavery: *When I first stood before the Japanese embassy in these demonstrations, my hair was black, but now it is white.* "There is a Korean saying: With the passage of ten years, even huge mountains will change." However despite bearing witness to and being on the receiving end of these demonstrations for 12 year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an still flatly turn down the requests of these grandmothers makes one feel anew just how shameless and unenlightened they can be.

The demand for Japan's atonement has received the widesprea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public and the strong sympathy of authori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ough a limited example, the Japanese judicature also ruled in favor of the truth and consequently expelled the problematic texts from schools.

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ference in June 1993, the point emphasized was that the effective confrontation and punishment of problems such as sexual slavery is essential, while in January 1994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emphasized in their final

report on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that Japan's actions had vio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seco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nference in March 1996, in a report by Radhika Coomaraswam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Japan was advised to accept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individually redress victims, establish a special government administered court, punish offenders such as those who drafted the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and ensure that related texts reflect historical truth. Also the special report on wartime systematic violation and slavish treatment of sex slaves presented by Special Rapporteur Gay MacDougall o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proved that the Japanese Military's program of sexual slavery was an unmistaka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verified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dress victim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comfort facilities". The resolution to charge Japan with these responsibilities was passed in August 1999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at the same time it was passed in the Californian Lower House. In December 2000 a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r Crimes and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the former Japanese emperor, Hirohito, was charged responsible for the inhumane acts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 war, such as rape and sexual slaver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lso stressed Japan's responsibility in this matter, while in April 2001,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noted that Special Rapporteur Radhika Coomaraswamy's report was "most positive" and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sexual violence.

Although the Japanese Court only represents a fragment, its rulings safeguarded truth and justice. Through the lawsuits involving such companies as the Japanese Steel Manufacturer Gamaishi (1997.9.), Japanese Steel Pipe (1999.4.), Fujikoshi (2000.7.), Hanaoka (2000.11.), reconciliation between the companies in question and the victims could come about. In the Ryurenjin lawsuit (2001.7.) related to the forcible apprehension of the Chinese, the Tokyo Regional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ay 20 million yen for its negligence in relation to providing post-war relief.

A good example demonstrating the extreme self-centered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society is the treatment of the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Although Japanese victims received approximately 2 trillion yen by 1998, the Korean victims, who make up one tenth of the Japanese victims, after a long and hard struggle only received one-off payments in 1990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taling 4 billion. However in the Kwak Kwi Hun lawsuit in December 2002, the Osaka High Court ruled that, "No matter where the bomb victims are from, the fact that they are bomb victims cannot be dismissed."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abandoned the decision to appeal, however through their decision to make Korean bomb victims come to Japan at least once in order to collect the valid compensation payment as set out in the Bomb Victim Protection Act, the elderly or ill when unable to receive their rightful compensation, while they restricted the provision of free medical diagnoses and payment of medical fees to within Japan. In addition there was no compensation or protection offered to North Korean bomb victims. After the passage of 57 years in the year 2002 when virtually all the bomb victims have already deceased, the fact that "No matter where the bomb victims are from, the fact that they are bomb victims cannot be dismissed," has finally been acknowledged, but is still being rejected.

The area in which the campaign demanding Japan's atonement has been most successful, at least superficially, would be the Japanese textbook issue. To summarize in short the Japanese government's basic stance on the junio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in 2001, they switched from "examination seeking to reject" to "examination seeking to approve". This was in order to authorize a textbook that glorified Japan's militaristic and fascist invasion of Asia, failed to record the Japanese military's program of sexual slavery, the

civilian massacres that occurred in Korea and East Asia and Unit 731's biological warfare while vaguely passing over the Rape of Nanking. This is a critical point in reveal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eceit and hypocrisy. The senior high school text, "Recent Japanese History", authorized in 2002, not only glorified Japan's war of aggression even further, but especially glorified the invasion of China, and called for a revision of Japan's Constitution (Chapter II: The Renunciation of War, Article 9 "No war clause"). However thanks to fierce resistance from Japanese and Korean citizen groups, the adoption percentage of the new junior high textbook composed by the "New History Textbook Conference" was recorded at 0.039% (521 copies) while a mere 1.83% (1056 copies) of the "Recent Japanese History", composed by the Japanese Assembly, was adop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forces worldwide demanding Japan's atonement are only becoming louder as they receive injury, and authoritative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ssemblies are clearly pointing out the responsibilities of Japan's government and society, Japan continues to firmly shut its doors of conscience. Japan continues to fail to display a sincere attitude towards its military sexual slavery program by acknowledg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ct of forcibly apprehending civilians, formally apologizing, examining the truth, erecting a memorial tower and history museum, compensating victims, providing historical education or punishing those responsible. Despite having watched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of victim grandmothers before the Japanese Embassy in Korea for the 600<sup>th</sup> time, they give no reply. All they did at the 600<sup>th</sup> "Wednesday Demonstration" was receive the declaration delivered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t is impossible for the Japanese to be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aid twenty thousand dollars to each victim of Japanese descent placed in a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at the governments of Canada, Britain,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paid compensation to the Japanese prisoners of war held captiv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or that Korea and Taiwan provided pensions for the victims drafted as Japan's military sex slaves. Despite being aware of this, Japan attempts to make do with a "National Fund for Peace in Asia for Women". It is with a heavy heart that we observe that this fund is not only being used to cover up the Japanese government's crime and avoid responsibility, but that it is vehemently encouraging division between victims and civilian organiz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Japan is aware that from July 2001, Germany expressed regret for inhumane actions committed in the past through actions and not words by paying a total of 10 billion marks to approximately 1.2 million victims under the slogan "Remember, Responsibility, Future" in relation to the forcible labor program undertaken by private enterprises under Nazi rule. We have no interesting in arguing here over facts such as that companies such as Mitsui and Mitsubishi ran "comfort facilities" at coal mines under the specific guid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Quite simply it is accounted that the amount Germany spent on post-war compensation up to 1988, when converted to an amount per capita, exceeds that of Japan by sixty-five times (The Asahi Newspaper 1993.8.18), although Japan handed over no less than 13 billion dollars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Gulf War in 1991 without complaint and spent 31 trillion yen (recorded as 40 trillion yen in a book published in 1991 "Civilians' Proposal for the Korean-Japanese Pact") in pensions and relief payments to the families of Japanese soldiers killed in battle between 1945 and 1990. I wish to point out that the total compensation paid by Japan to Korea and South 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amounts to only 656.5 billion yen (approximately one trillion yen when combined with the overseas assets Japan forfeited).

Why is it that the Japanese resist opening their hearts to widespread international public sentiment and the advice of authoritative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uld it be excessive to claim that this phenomenon is due to Japan's rightist inclination resulting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a discriminating mass media and political demagoguery, and the autistic nature of a self-centered Japanese society?

2.

In this day, from the writings of a French professor in the final year of the twentieth century, a situation is unfolding worldwide that could be called the "globalization of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In the 1980s, the 1990s and the 2000s, in places such as South Africa, Germany, Europe, Asia, Central and South America, repentance, reconciliation and atonement has vigorously occurred and continues to do so. This is in order to newly create the present and future by remembering the twentieth century of slaughter and brutality through the emotions of the victims.

However Japan alone is undergoing an extreme rightist phenomenon, as if it were an extraterrestrial island trying to make amends for its lost ten years as the twentieth century came to an end, and as we cross over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taking this extremity one step further. Many Japanese intellectuals with good common sense say comfortingly that this is merely a passing phenomenon.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far from optimistic. Against this stormy backdrop, any repentance, apology or redress for the past atrocities – the war of aggression and colonial invasion – can only have very little persuasive power.

From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Japan has seized each and every opportunity to go down the path of nationalism and militarism. Defying the volley of opposition from world opinion, the Diet passed three measures relating to crisis legislation in June 2003, immediately following the United States' Bush's invasion of Iraq – a bill to cope with military attack, a bill to amend defense force legislation and a bill to establish an assembly to guarantee security – consequently exciting the rightists with the new promise of war capability.

As Japan continues along the road to becoming a militant nation, its neighbors who clearly remember the past can only gaze upon Japan with anxiety and distrust. That Japan is encouraging the wave of militancy using the military power of its neighboring nations as an excuse is no different from Japan's stubborn insistence that it invaded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because it believed Russia would takeover Korea. Japan's military expenditure i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it possesses 8 tons of refined plutonium and a further 35 tons accumulated in European refineries.

Prime Minister Koizumi's referring to the Defense Force as an army in the Die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Force in 1954 and suggestion that a pre-emptive strike was permissible in a state of emergency when he passed three bills through the Diet at a Upper House Special Committee for Crisis Legislation is a dangerous development in itself, while the promotion of Abe Shinjo to the position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could be called an example of conniving political demagoguery. Abe Shinjo, the son of Abe Shintaro and the only grandson of Gishi Nobusuke, an A-class war criminal who served two terms as Prime Minister, created in 1997 an "assembly of young Diet members concerned about Japan's future and historical education" and argued that the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does not exist and should be removed from textbooks. Widely known as an anti-North Korean hardliner, he took over th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from Tanaka Hiroshi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who receded after being branded a traitor for promot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 February of this year, on th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in which Japanese militarism reared its head in earnest, which also became the foothold for Japan's invasion of Korea, the islands of Japan were swept up in

a suspiciously heated atmosphere. Not only did far-rightist newspapers publish feature articles on th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Russo-Japanese War on such topics as the nation's war, but in the first overseas deployment of troops to a combat zone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ninety soldiers that constitute the main Land Defense Force were made to make their victorious entry into Iraq's Samawa on February 8, the date commemorating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Such acts only made permanent the provocative impression left upon neighboring countries. Foreign wires reported that many Japanese believed the Defense Force troops deployed in Iraq represented the "resurrection of Japan's imperial history" while the youth displayed a feeling of goodwill towards the military. Furthermore forty-three Japanese Diet members collectively paid homage at the Meiji Shrine on February 10, the date on which Japan declared war against Russia. It was revealed that these Diet members inaugurated the meeting for the instruction of the Russo-Japanese War.

A few days before composing this piece of writing, I had occasion to hear one professor disclose that the current Japan is difficult to understand. Although it is possible to explain why the phenomena of the past occurred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Japan of the time, it seems that I am not alone in feeling that this is impossible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as though Japan is suffering from a serious psychological disorder.

On September 17, 2002, following the Pyeong Yang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ncidents of violence and abuse, such as the case where a female student of a Korean school in Japan had her skirt ripped with a knife, occurred one after the other. According to a damage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e of affairs, conducted by an organization between November 30, 2002 and March 20 2003 on 2710 students at Korean schools in areas such as Saitama-ken in Tokyo province in the Kantou region, 522 replied that they had experienced violence and verbal abuse, particularly more so if students were female or younger in age. Some young students say that this abuse is to the extent where they are reminded of the massacre of Koreans at the time of the Kantou Earthquake in September 1923 about which they heard from their parents.

Although it is astonishing that in September 2003, explosives were discovered in the private parking lot of Tanaka Hitoshi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Japanese – North Korean summit, it was even more shocking that Tokyo's provincial governor, Ishihara Shintaro should overtly state that "it is no wonder that explosives should be installed". In October, a little over a month after making this statement, Ishihara was invited as a speaker at a conference to rescue the Japanese abducted by North Korea. Here he argued along the lines that the colonial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a forceful invasion, but a humane decision based upon Korean consensus. How can one explain how such a figure could be elected to the position of provincial governor with an overwhelming difference in votes in a place such as Tokyo, and be a promising candidate for future Prime Minist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s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the first step must lead on from the Japanese-North Korean summit, were the North admitted to kidnapping thirteen Japanese nationals, apologized and expressed the intention of preventing such an occurrence from repeating. However following the return of the five survivors of the past kidnapping incident to Japan as part of a temporary homecoming deal, the Japanese government is showing an attitude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lthough there was a definite promise to return the five survivors to Pyeong Yang, that the Japanese broke their promise, decided not to return the five, and delivered an ultimatum demanding that the families of the five also be returned or else diplomatic relations would be impossible, is no different from tyranny. Threatening to halt trade and remittance is also incomprehensible.



The consigning of government school inspectors from Tokyo's Provincial Education Committee to each school to observe the raising of the flag and singing of the national anthem at this year's graduation ceremonies in March, the warnings delivered to 77 schools and 176 staff members for not standing to attention during the singing of the national anthem and canceling contract renewal, is reminiscent of Imperial Japan and causes great confusion. Also incomprehensible is the persecution of Iraqis by Japan's government and society with regard to the recent Iraqi kidnapping incident of Japanese nationals.

Amongst the incidents that have been occurring in Japan recently, one that incites strong feelings of anger and distrust is that of Prime Minister Koizumi's paying homage at the Yasukuni Shrine and the related quibble. It is well known that fourteen A-class war criminals, such as past Prime Minister Tojo Hideki, are enshrined at Yasukuni Shrine (1978.10.) along with B and C-class war criminals who were prosecuted for ordering or executing the act of war, and a huge number of Japanese commanders such as generals and lieutenant-generals who died in battl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onsequently the Yasukuni Shrine has become a symbol of Japan's militaristic aggression. Furthermore, the Yasukuni Shrine rejected the request for the relocation of the twenty-eight thousand Taiwanese and twenty-one thousand Koreans enshrined there.

Prime Minister Koizumi paid homage at the Yasukuni Shrine once a year from his inauguration in April 2001, however he shrewdly made a surprise visit on January 1<sup>st</sup> of this year. Then in the Diet on February 10, he explained that he did not oppose the enshrinement of A-class war criminals. On March 28, he commented that, "[he] could not tolerate the strange and antagonistic attitude of foreigners [regarding this issue]," and frankly stated that, "Generally the heroes of one country are branded as villains in another". With regard to the ruling of the Fukuoka Regional Court on April 7 that, the Prime Minister'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violate Article 20 clause 3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f the constitution," he defended his position on the grounds that "Because the visits to the Shrine are founded on his personal principles, it is a private matter". During a press conference, he shook his head, uttering no less than sixteen times that he "did not understand why his actions were unconstitutional". So as not to be outstripped by the Prime Minister on this issu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be Shinjo made his position clear by saying "the Prime Minister's visits to the Shrine a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re within its bounds".

Koizumi and Abe's resistance to the judicial ruling, that there exists an undeniable possibility that they are acting unconstitutionally, makes one wonder if they are upholding the principle and law of separating the three arms of government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Judiciary). As the chief justice of the Gamekawa Court indicated, there is no way that Koizumi would not realize that there is a constitutional problem. In January 1991, the Sendai High Court ruled that, "the formal visitation [of shrines] is an unconstitutional action which falls under religious activities prohibited under Article 20, clause 3 of the constitution," a ruling which was made irrevocable by the Court of Appeal. In February 1992, the Fukuoka High Court also ruled that, "the continuation of formal shrine visitation is unconstitutional," and this ruling was also made irrevocable. Koizumi's insistence that his shrine visitation is a personal matter is as futile an act as attempting to conceal the sky with one's hand, and is no less than a fallacy mocking the Japanese people. The Prime Minister's visit in a full dress coat differs not from his visit this year in Kimono dress.

That Koizumi would so senselessly liken war criminals like Tojo to heroes makes one wonder whether he is of sound mind, and a member of a civilized country. War criminals such as Tojo are in the same throng as enemies of humanity and militaristic Fascists like Hitler, who by instigating inhumane and uncivilized acts of war caused the deaths of millions and inflicted unspeakable pain upon billions. These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the countless massacres such as the Rape of Nanking and the undertak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If such individuals were members of another country who had caused the same injury to the Japanese people, could the Japanese say with such ease that one country's hero is another country's villain? Would Koizumi and his cohorts not think in the least that the atrociti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 between the Russo-Japanese War and Japan's defeat in 1945 were inexcusable?

One cannot help but pale at the statement, that the antagonistic attitude of foreigners towards the act of paying homage to war criminals is strange and intolerable. It is the fact that anyone could utter such a statement that is strange and intolerable. That anyone would pay homage to a shrine where war criminals and instigators of aggressive wars are enshrined is inadmissible. Moreover, as people who remember as if it were yesterday what kind of consequences Imperial Japan's militarism and nationalism brought about, we cannot gaze on with indifference as the Prime Minister's practice of shrine visitation steers Japan down the path of militarism and nationalism once more. There is no act more irresponsible than that. As people who know far too well what resulted from the administering of imperialistic education under Imperial Fascist rule, we cannot ignore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educational policy which authorizes the use of a textbook that truthfully records Germany's invasion as invasion while obstinately arguing that an invasion is not an invasion by inscribing on the same page that Japan's invasion was nothing more than "advancement" or "occupation" ("Recent Japanese History" p.248) and consequently inspires Japanese imperialism and militarism.

### 3.

In order for Japan's atonement to be realized, a revision of the Korean-Japanese Pact is required. The need for the Korean-Japanese Pact to be revised has been consistently brought up in academic circles for some time. In November 2000, thirty-three members of parliament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posed a bill to parliament for the Japan's atonement with regard to its colonial vestiges related to the diplomatic pact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se parliamentarians asserted that even if the fundament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presented as a framework for the diplomatic pact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t should not be disabling t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insisted that the problems over Japan's formal apology and compensation payments must be conclusively settled. They emphasized that the Uelsa Treaty (concluded in the 42<sup>nd</sup> binary year of the sexagenarian cycle), the seven provisions of the Jongmi Treaty (concluded in the 44<sup>th</sup> binary year of the sexagenarian cycle) and the Korean-Japanese Annexation Pact be declared invalid in diplomatic discus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for the reason that they were forcibly conclude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and violence. In September 2002, in the lead up to the North Korean-Japanese summit, a joint declaration presented by parliamentarians and civilian and social organizations also strongly insisted upon Japan's atonement and dema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bolish the wrongful pa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renegotiate the terms of a bilateral agreement. Japan discarded the Unequal Treaties concluded with western nations, and by 1890 had concluded new agreements with Britain, USA, France and Austria. The Liberal Democratic government poured their energy into the Japanese-American Security Pact concluded in 1951, and passed a renewed security agreement in May 1960, in the face of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and the nation, and passed the New Japanese-American Security Pact in May 1960.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 problem was proposed a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internationally, with relation to Japan's atonement. This problem was brought forward after 1970. Thus it was not discussed at all at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The fact that the pac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concluded without addressing the military sex slave issue becomes the crucial factor in revising the pact - the "unforeseen" - creating a

reason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ircumstance.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making conflicting assertions in interpreting such problems as the nullity of the Uelsa Treaty and Korea's status as the single legally recognized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Korean-Japanese Pact, however these points must be clarified in the new pact. It is necessary recall that at the time of the Korean Japanese Conference, there was a huge resistance movement in relation to these points, due to the fact that the conference was carried out in a secret location. Also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in recent times, many new resources have been excavated and new investigations have accomplished. Japan's apology must also be elucidated in the new pact.

The Korean-Japanese Right of Claim Agreement has been a source of much injury for victims forcibly apprehended by Japan. Although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petty sums from claim funds to an extremely limited portion of victims is problematic,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agreement is the greatest obstacle for the compensation for victims forcibly apprehended by Japan. In customary compensation courts, claims were rejected on grounds such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the argument absolving the state from responsibility and the argument separating the actions of private enterprises from the actions of the state. Furthermore the need to amend the pact has been drastically curtailed against the backdrop of Japan's safeguard measure against the lawsuits brought against it in places such as Korea and America, thanks to the argu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of the previous pact, absolving them from responsibility and taking away the need for the pact to exist.

The revision of the Korean Japanese Pact is also being requested due to the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As all are aware, the Korean-Japanese Pact was concluded in 1965 in the same context as the San Francisco Treaty and the New Japanese-American Security Pact and is therefore interlocked in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n American Japanese three-way security system. The three governments concluded this treaty with regard to the hostile policies of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Japan and America, and China and Russia have completely altered. The North and South Mutual Agreement of 1991 was adopted, and the historic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presented on June 15, 2000. The North Korean-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7, 2002 also clearly shows the changing state of East Asia.

If the revision of the Korean-Japanese Pact is difficult, the two governments can solve the problem through a "Joint Declaration" or a "Joint Interpretation". Additionally the clauses relating to Japan's atonement in the North Korean-Japanese Pact may be clarified and methods of applying it to the Korean-Japanese Pact investigated.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so inextricably linked to Japan's atonement, we urge the swift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ill bring down the final barrier of cold war in East Asia and become the path to creating a present and future based on peace and cooper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Should Japan compensate based upon their statement in their declaration on September 17 - "We humbly acknowledge the historical fact that we have inflicted enormous pain and injury on the Korean people through our past colonial rule, and wish to express our apology through a heart of earnest repentance" - it would symbolize an epoch-making conversion regarding the problem of their atone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future in Asia embracing a new Japan.

We are well aware that Japan is in a dangerous situation. Through such acts as the Prime

Minister publicly declaring that he would continue to pay homage at the Yasukuni Shrine, Japan is in fact conducting itself in a manner that is retrogressive to achieving atonement. Also the "Assembly of young Diet members concerned about Japan's future and historical education" originated by Abe Shinjo, in which eighty Liberal Democratic Party Diet members are a part of, reached a consensus in February this year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erm, "forcible apprehension," featured in an exam question, and agreed to lead a campaign to erase accounts relating to "forcible apprehensions" from history textbooks. Last April, a certain Japanese newspaper reported that specific figures relating to Japan's forcible apprehensions, which were recorded in a prim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were erased by the will of the publisher.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with the audacity of a thie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with their confounded reasoning that the textbook problem had arisen due to the authorized version being released prematurely, and did their utmost to prevent the premature release of the approved version. It is only natural to be concerned as to what kind of textbook will be borne from the government's policy of examining with the intention of authorizing, and as to how much higher than 2001 the adoption percentage of the textbooks composed by the assembly for the creation of a new history textbook will be,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Japan's rightist phenomenon.

However it is not as though Japan's government and society are unaware that the present rightist phenomenon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As in the past, changes in America will be play a role, but most importantly, Japan understands that they cannot continue to ignore the solidarity of and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lsion and confront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realizes the need to show a positive change in favor of atonement in any form.

After the passage of sixty years, the survivors of forcible apprehension programs are extremely scarce. Germany's "Remember, Responsibility, Future" Foundation infers that 1% of these people naturally decrease every month. Of the 212 surviving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registered with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81 deceased between 1993 and April of this year, leaving behind a remainder of 131 survivors as of April 2004. These remaining survivors are mostly over the age of 80, and thus have a high probability of passing away soon. The majority of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program are grandmothers who reside alone and suffer from post-trauma str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conducted by Yonsei University, whereby 26 victims were psychologically assessed between June and August of 2003, all participants were suffering from the pain of post-trauma stress while a portion of them were suffering from illness proportionate to that of a hospitalized patient.

In this way, the issue of Japan's atonement is an urgent one. We have pledged to endeavo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between the forces demanding Japan's atonement, and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for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ties and actively confront Japan's government and businesses in order to bolster negotiations for reconciliation with Korea so that legislation may be enacted in the Japanese Diet for the hastening of the solving of the military sex slave problem, indemnification for the acts committed by B and C-class war criminals, and the supporting of detainees in Siberia. This year, the "Special Act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Relating to Forcible Mobilization under Imperial Japan" and the "Special Act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relating to Unpatriotic Acts Committed by Japanophiles" was passed by the Korean parliament. The new parliament that has set sail this summer will exert itself even further for the cause of Japan's atonement. We earnestly request that Japan's government and society endeavor to create a unified Asia, healed through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like Europe, so that the past will no longer haunt them.

(번역 Sharnie Kim)

## 韓國人原爆被害者의 참상과 원호법재판의 勝利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곽 귀 훈(郭貴勳)

나는 1924年(甲子年)생으로 日帝때 徵兵제1기에 해당되어, 1944年9월에 全州師範學校5學年 때 졸업을 半年앞에 두고, 日本軍에 입대하여 日本의 히로시마(廣島)에서 간부훈련 중, '45年8月6日 인류최초의 原子爆彈에 폭심 2km지점에서 피폭, 9死1生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피폭 후 귀국해서 본업인 教育에 종사하여왔고, '67년부터는 韓國原爆協會창립에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40年가까운 긴 세월동안 日本政府에 대하여, 韓國人原爆被害者들에게 謝過하고, 그 被害를 補償하라는 運動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原子爆彈이 투하될 당시, 히로시마시의 人口는 42萬名이었고, 韓國人은 5萬名정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3萬名정도는 피폭 후 죽고, 2萬名정도는 살아남았으며, 3日후 나가사키(長崎)에 두 번째 原爆이 投下되었을 때, 당시의 나가사키의 人口는 27萬名이었고, 그 중에 韓國人은 2萬名정도가 살고 있다가 1萬名정도는 被爆死하고, 1萬名정도는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피폭지의 전체피폭자 수는 70萬名이고, 그 중의 1割이 韓國人이란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韓國人의 사망자 수는 두 도시의 被爆者 수를 합해서 4萬名정도이고, 살아남은 사람 중 祖國으로 돌아온 사람은 2萬3千名쯤 되고, 日本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7千명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解放된 祖國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으나, 被爆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家族과 같이 安住할 수 있는 집이 있을 리 없었고, 耕作할 수 있는 農土도 물론 없었으며, 被爆한 흉터는 한센病환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原爆後遺症에 시달리다가, 病院은커녕 藥 한 봉지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千秋의 恨을 품고 죽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피눈물 없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慘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 李南洙란 사람은 “내가 죽으면 屍體를 日本大使館으로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韓國人原爆被害者를 三重苦의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強制로 連行되어 갔고, 두 번째는 原爆에 被爆했으며,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치료도 받지 못하고 放置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日本에는 28萬여명의 피폭자가 있습니다. 韓國에는 현재 그의 1할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千1百여명만 原爆協會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모두 黃泉의 客이 되고 만 것입니다.